



**표지설명**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바른 코로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 순천향

2020.03+04

Vol. 58 통합의료원보

#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MARCH / APRIL 2020  
 통합의료원보 VOL. 58

03/04



4



6



12



22



40

## CONTENTS

4	HISTORY	서석조SCH플랫폼
6	INFORMATION	코로나19 올바른 대처법
8	INTERVIEW	서유성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10	LOVE	김민환 환자 감동 이야기
12	DOCTOR	정성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16	VISIT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20	WITH	이상만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 회장
22	ISSUE	서울병원, 뇌종양 치료 사이버나이프 병행
24	ISSUE	부천병원, 뇌건강센터 개소
26	ISSUE	천안병원 송금종 교수, '남만덕덕 김사부2' 의학자문
28	ISSUE	구미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30	KNOWLEDGE	퇴행성 관절염 치료법
32	KNOWLEDGE	'부신기능저하증'을 아시나요?
34	KNOWLEDGE	'연성 방광요도경' 검사법
36	KNOWLEDGE	경추부 척수증, 정확한 진단 적기치료 중요
38	EQUIPMENT	최첨단 MRI장비_MAGNETOM Skyra
40	ALUMNUS	이현우 순천향의대 28회
42	BOOKS	'페스트'
43	EFFECT	
44	NEWS	

### 「순천향」 통권58호

발행일 2020년 4월 1일 발행인 서유성(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서태원, 유재민  
 연락처 02-709-9120 www.schmc.ac.kr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59 기획·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아트엠파트너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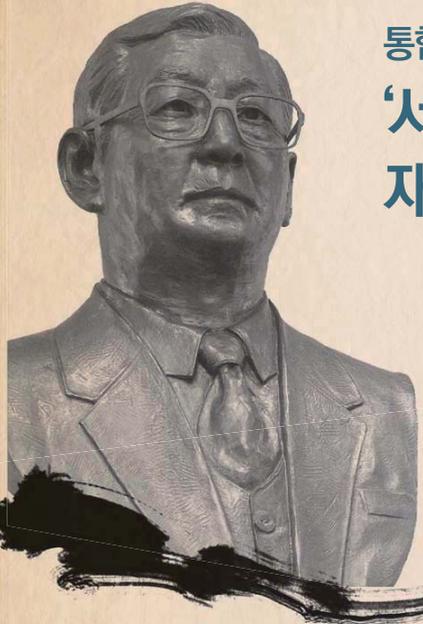
코로나19,  
 순천향의 빈틈없는 방역



COVID-19  
 예방수칙 지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고(社告)]

서석조SCH플랫폼이 이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순천향대병원 순천향대학교 설립자 항설 서석조 박사의 서거 2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의학 발전의 위대한 업적인 병원·대학·의학연구의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과 이를 기념하고 후학들에게 표상이 되고자 항설박사의 일대기를 연재합니다. (다음호 2교토에서 구는 꿈)



## 통합 시스템 구현의 토대인 '서석조SCH플랫폼'의 재발견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유치원을 다녔다는 것도 흔한 일도 아니다. 서 박사의 아버지인 서경선 옹은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 신자인데다 교육열이 높아 아이들을 교회 부속 유치원에 보냈다.

서 박사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똑똑했으며 노래를 잘 불러 또래 아이들에게 언제나 인기가 좋았다. 곱상하게 생긴 얼굴에 얌전한 친구들과 다투는 일도 없었고 손재주가 좋아 장난감도 잘 만들었다. 언제나 말썽이 없는 착한 아이였다.

### 문학과 미술 좋아하던 만능 스포츠맨

서 박사는 현 경북고등학교의 전신인 경북공립중학교를 다녔다. 학창시절 우등생으로 공부를 잘했고 특히 기억력이 비상해, 누구도 기억력으로는 당할 친구가 없었다. 문학과 미술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다. 운동에도 재능이 있어 유도가 2단에 검도가 초단이었다고, 야구와 축구와 육상에서는 학교 대표선수로 뛰었다.



경북공립중학교에서 받았던 검도 1급 증서와 상장.

### 복숭아와 오얏나무 많았던 '도리원'

서석조 박사는 1921년 4월 2일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도리원에서 태어났다.

서 박사의 고향인 도리원은 옛날 시장이름인데 사람이 많은 곳이라서 도리원(都里院)이라는 얘기도 있고, 1920년대 시장을 옮기면서 복숭아와 오얏나무가 많아 '도리원(桃李院) 시장'이라고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도리원 전통시장'과 '의성봉양시장'등 상가들이 밀집된 전통시장을 만날 수 있다.

서 박사는 도리원에서 태어나 세 살 때 의성읍으로 이사를 갔으며 의성읍내에 있는 장로교 교회 부속유치원을 다녔다.



서석조 박사가 태어났던 생가터 근처.

순천향병원 초창기, 병원 체육대회라도 열릴 때면 서 박사는 배구와 축구 경기에 직접 참가하여 젊은 직원들과 어울리면서 만능 스포츠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 시대 흐름 꿰뚫었던 '원조 무역상'

'조선에도 곧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서석조 박사의 부친인 서경선 옹은 세상의 변화를 한 발 먼저 내다보고 움직이는 선각자이자 실천가였다. 경성과 같은 큰 도시도 아닌, 경북 의성이라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응했을 정도로 남다른 현실 감각을 가진 인물이었다.

서경선은 일어강습소에서 야학으로 3년을 공부한 덕분에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일본어 웅변대회에 나가 1등을 차지했을 정도로 일본어에 대한 자신감도 대단했다.

시대의 흐름을 재빨리 감지하는 남다른 비즈니스 감각과 틈틈이 닦아온 여학 실력을 바탕으로 서경선은 경북 의성에 자전거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가게를 열었다. 서경선이 일본을 오가며 자전거를 수입해서 들여오면 아내인 박래선이 주로 자전거를 판매했다. 지금이야 자전거가 너무 흔해져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당시만 해도 자전거 있는 집이 귀했으며 일본에서 수입한 자전거라면 재산목록 상위권을 오르내릴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다. 아마 지금의 기준으로 보자면 아마 고급 수입 자동차 판매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

을 보고 '원조 무역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서석조 박사의 모친인 박래선 여사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보면 상당히 앞서가는 인물이었다. 여자들의 활동이 제한적이었던 1920년대에 적극적으로 장사에 나서고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개화한 신여성이었다.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서석조 박사 역시 삼 전제를 돌아볼 때 어린 시절 부모가 미친 영향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 '강남 엄마' 능가했던 아버지의 교육열

서경선의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만큼 빛났던 것은 바로 교육열이었다. 아이들을 모두 유치원에 보내서 교육시절 정도로 이렸을 때부터 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했으며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에게는 공부를 잘 시키지 않았고 아들 중에서도 큰 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몰아서 주는 집들이 많았지만 서경선은 아들, 딸 모두를 똑같이 교육시켰다. 병으로 죽은 첫째 아들의 경우도 의성에 살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할 나이가 됐지만 한국 사람은 중학교에 갈 수 없다고 하자 서경선은 서울에 있는 학교까지 모두 알아볼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다행히 대구에 있는 경북공립중학교는 입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구로 이사를 아들 중학교에 보냈다. 서경선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요즘 교육열 높기로 유명한 '강남 엄마' 못지않았다. 자전거를 수입하기 위해 자주 일본을 드나들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를 직접 눈여겨 본 그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했다.

### 아이들을 일본에 보내 공부 시켜야겠다.'

큰딸 서순자를 시작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까지 5남매 모두를 일본으로 보내 교육을 시켰으며 아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아내 박래선까지 일본으로 보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 남아서 돈을 벌어 일본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러기 아빠'인 셈이었다. [▶▶▶](#)

**COVID-19 A TO Z** 순천향대중앙의료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올바른 코로나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 예방수칙 지키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아데노, 라이노, 코로나)중 하나인 바이러스의 모양이 완공 모양 같다 하여 Corona Virus라 불린다.(Corona는 라틴어로 왕관이라는 뜻)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가 '지역사회 전파'로 확대 되면서 급격히 늘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제와 백신이 아직은 없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알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유증상자* 예방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흐린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li> <li>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li> <li>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li> <li>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굴이나 좁은 공간, 회의 등 사람이 밀집된 장소에 가지 않기</li> <li>3~4일 경과된 감염환자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li> <li>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li> <li>전부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이 증상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마스크 착용하기</li> <li>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0°C 이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10일 이상 지속될 경우, 119 또는 120,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li> <li>외출 전 반드시 19 예방수칙을 숙지하고, 입출, 퇴치에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외출, 발열, 발진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하기</li> </ul>



**순천향대병원의 코로나 안전 대책...지역거점병원으로 사회적 책무 최선**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산하 전국 4개 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최전선에서 전 교직원인 사명감을 갖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음압 시설 등 선별진료실을 신속하게 설치하여 신속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다. 특히 3월 6일 전국에서 7번째로 개소한 '코로나19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 의료진을 긴급 파견해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소 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충남대구1 생활치료센터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대구·경북 지역 확진자 308명이 1차로 입소했다.

### 2주만 '집콕'해도 심장-폐 기능 저하... 대처법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서 쉬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많다. 감염 위험으로 인해 헬스장 등 운동 시설 방문도 꺼려진다. 그러나 2주만 집에서 빈둥거리고 심장-폐 기능이 저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심지어 당뇨병 위험도 높인다. 그렇다고 외출하기는 어려운 요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실내 운동법으로 건강을 지켜보자.

### 집에서 2주만 빈둥거리고 심장-폐 기능 저하

영국 리버풀대학교 연구팀이 평균 36세의 건강한 성인 45명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식사는 평소대로 하되, 움직임을 줄일 것을 요청했다. 1만보 걷던 것을 1500보 정도로 줄이고, 대중교통 대신 차를 이용하도록 했으며, 계단 대신 승강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게 했다. 주말에는 집에서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활동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체지방과 허벅지 둘레가 늘고 근육량은 줄었으며, 심장-폐 기능이 감소했다. 이들은 인슐린 민감성이 낮아져 당뇨병 발생 위험도 커졌다.

### 배개, 의자, 줄넘기 등 간단한 도구 이용하기

헬스장에 있는 덤벨이 없더라도 집에서는 생수병이나 무게 등으로 근력운동을 할 수 있다. 집에 줄넘기가 있다면 새롭게 활용해보자. 반으로 접은 줄넘기를 오르발에 걸어 더디고 선다.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며 상체를 곧게 세우고 왼발은 바닥에 발끝을 세운다. 지탱하고 있는 다리를 따라 왼발 끝을 천천히 무릎까지 올린다. 이때 무릎은 바깥쪽을 향한다. 다리를 바꿔 반대쪽도 실시한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 강화에 좋다.

## Q&A

### 검사 소요시간과 비용은?

신속 검사민은 2-3시간이 걸리지만 검체 이동,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을 포함하면 6시간 정도 소요된다. 결과가 애매해 재검사, 검증용 하면 더 길어질 수 있다. 현재 의심환자의 검사비용은 전액 국가부담이다. 의심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해 보건소에 문의해야 한다.

### 1차 검사는 음성, 재검시 양성 이유는?

검사를 하려면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증상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미비해 검사를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정확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유를 언급하기는 어렵다. 바이러스 특성과 검사 과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보통 수준의 면역력을 지닌 성인이라면?

자료가 많지 않아 일반화하기 어렵다. 한 환자의 예를 들면, 심한 폐렴으로 산소 치료를 했는데 발병 2주 이내에 열이 떨어졌고 산소 요구량 회복도 10일 정도 걸렸다.

### 산모나 신생아는 어떻게 치료하나?

산모, 신생아도 인공호흡기 사용 등 보존적 치료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공인된 치료제가 없어 실험중인 약을 사용한다. 투약 가능 여부는 약마다 다를 수 있다. 참고로, 정보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소아 감염의 증상은 가벼운 편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 대중목욕탕 물에도 감염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인가?

그렇지 않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오래 생존할 수 없고 염소나 열에 약하기 때문에 수영장 물이나 사우나를 통해서 전파되기는 어렵다.

### 중국을 비롯한 해외나 위험지역에서 온 택배들 과연 안전할까?

안전하다. 택배가 운송되는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바이러스는 대부분 사멸된다고 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코로나 19는 물체 표면에 오래 생존하지 못하므로 중국발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우려할 일이 아니라고 밝혔다.

### 반려인들의 걱정 우리집 반려견들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까?

A.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게 감염을 일으킨다는 정보는 없다. 다만 반려동물을 만지신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이 좋다.

# “병원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지속가능 가치 창조”

인간사랑 생명존중이라는 순천향 정신으로 1974년 개원한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 순천향병원. 이어 1978년 개교한 순천향 의과대학은 의사가 설립한 의과대학의 1호이다. 250병상으로 시작한 순천향은 현재 서울 부천-천안-구미에서 총 3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으로 성장 발전했다. 역사와 전통의 순천향대학교는 의무부총장 겸 중앙의료원장에 서유성 서울병원장을 임명했다. 2012년부터 맡아 온 순천향대 서울병원장직도 다섯 번째 연임한다. 세 가지 중책을 맡게 된 서유성 의무부총장의 ‘앙트레프레너 리더’로서 경영철학을 들어본다.



‘앙트레프레너 리더’ 서유성 순천향대 의무부총장

2010년 순천향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을 마치고 10년 만에 다시 중앙의료원 보직을 겸하게 되었다.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대학의 의무부총장과 서울병원장직도 겸하게 돼 부담이 큰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특히 우리 의료원을 이끌어 주셨던 역대 의료원장님들은 서석조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상주, 김부성, 변박장 등등 모두가 우리나라 의료계의 큰 어른들이셨다. 전통

과 역사를 이어나가고 의료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 국내 최정상 의료기관으로 성장 1조 클럽 가입

현재 우리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전문의 720명을 포함해 전체 교직원인 6천500명이다. 월 평균 외래환자 21만5천명

에 입원환자 7만7천명, 매월 5천600건 이상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2월 중순에는 매출 1조 클럽에도 가입했다. 굳이 순위를 매긴다면 국내에서는 8위정도 될 것이다. 규모나 성적 모든 면에서 국내 최상위 그룹의 의료기관이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한다. 최근 우리 의료원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새로운 미션을 수립해서 발표했다.

### “fly wheel”전략으로 지속가능 시스템 만들 것”

‘인간사랑 정신’은 순천향의 설립자이신故 향설 서석조 박사님께서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아래 설립이념으로 가지셨던 우리의 정신이다. 그 정신을 누구보다 잘 실천하고 계시는 서교일 총장님의 솔선수범을 본받아 오랫동안 국내, 국외 의료봉사 및 저소득 환자 후원 뿐 아니라, 해외 의료기술 전파까지 순천향 만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의료부문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발상에 맞춰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 순천향도 미래형 진료환경과 미래형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

진료·교육·연구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함께 경제적 이윤 및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가치창출이라는 전략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요양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유입하고 치료하는 동반구조 외에 그들에게 감염관리나 간호간병서비스 노하우와 같은 기술력을 전파하여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들이다.

짐 콜린스가 말하는 ‘fly wheel’ 개념도 참고할 것이다. 병원을 경영하는 것은 큰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과 같다. 진료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여력이 생기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실적 있는 교수진과 교직원들을 모셔오고, 기존의 인력을 교육하여 더 좋은 성과를 갖고, 또 좋은 복지와 처우를 개선해서 사기를 올린다. 그 힘으로 좋은 인력들이 효율적으로 장비를 사고 시설을 정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커다란 수레바퀴를 처음 돌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번 반복하면 가속도가 붙고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어 느 순간 우리의 미션, 비전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조정과 통합으로 순천향의 새로운 가치 창출

의료원장의 임무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조정하고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천향 각 병원은 지역도 다르고, 환경과 특색도 다르고 장단점도 다르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향을 정하고 병원 간 합의를 통해 일관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때론 방향의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의료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모두가 하나 된 생각과 마음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멋진 조정자가 되어 보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병원과 의과대학이 조화롭게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의료원이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와 소통을 통해 통합의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우리 순천향은 100년을 넘어 200년 역사를 선도할 수 있는 순천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는 조정자 역할과 더불어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앙트레프레너’가 되고자 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좀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아끼지 않는 ‘앙트레프레너 의료원장’이 되어 보겠다.

의료원 직원들,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의 모든 순천향 가족 한 명 한 명이 새로운 가치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고,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을 통해 순천향의 미래를 만들게 될 것이다. ‘앙트레프레너 의료원장’ 열심히 해보겠다.



### [용어Tip]

- 플라이휠(Fly Wheel): 동력 없이 관성만으로 회전운동으로 처음에는 엄청난 추진력이 필요하지만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알아서 돌아간다는 의미로 세계적 경제학자 짐 콜린스가 아마존 창업자 제프베조스에게 조언한 아마존의 법칙으로 유명
- 거버넌스(governance):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 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
- 앙트레프레너: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포기하려던 삶,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팀'의 완벽한 팀워크

## 순천향이 새 삶 선물했어요”

간은 회복이 힘들다. 간경화 등으로 고통 받는 이들의 심정은 본인이 아니면 알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간을 이식받는 방법뿐이지만, 생체이식이나 뇌사자이식 모두 결코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삶을 포기하려는 환자들까지 있다. 그러나 인생을 정리하려는 순간 기적적으로 간이식에 성공해 새 삶을 살게 된 이가 있다. 김민환 씨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김 씨에게 새 삶을 선물한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팀이 생명의 은인이다.

글. 전진용 사진. 임상협

김민환 씨는 삶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었다. 본인의 간이 안 좋은 것은 알았지만 관리를 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미뤘다. 늦게야 알게 된 알코올성 간경화는 거의 회복 불가능 상태였다. 마지막 희망은 간이식뿐이지만 생체이식을 해줄 사람도 없었으며 뇌사자간이식은 그저 기다리는 일 밖에는 할 수 없었다. “깨어나서 먹고 잠들 때까지 뭐하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나 스스로는 젊다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마저 했었으니까요” 10여 년 전 어머니가 허리수술을 받았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김민환 씨한테는 좋은 인상을 주었다. 그래



서 마지막 희망이라는 불씨라도 잡기 위해 찾은 곳이 순천향대 서울병원이었다. “주변사람들의 평가나 인지도, 그리고 나의 기억 속으로 제 발길을 이끈 곳이 순천향대 서울병원이었습니 다. 지금 돌아보면 이 결정이 저에게 제 2의 삶을 선물해준 것 같아요”

### 뇌사자의 기증으로 새 삶의 기회를 얻다

지난 5월, 드디어 김민환 씨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지방의 모 대학에서 뇌사자가 발생해서 김민환 씨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자상태의 경중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지만 김민환 씨의 순서가 된 것이다. 그만큼 위독한 상태였다. 이번 수술을 지휘한 김경식 외과 교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간이식 최고전문가의 중 한명이다. 특히 생체간이식 분야에서는 복강경 수술의 명의로 인정받고 있다.

김 교수는 “간이식 수술은 의사 한명의 능력으로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저희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간이식클리닉센터 모든 팀원의 노력으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수술은 완벽했다. 수술 후 경과와 지금까지 진행해온 간이식수술 가운데 가장 좋았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팀원 전체가 하나가 되어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으로 코디네이터와 의사 2명이 한조가 되어 내려가 뇌사자에서 추출한 간을 신속하게 운반하는 사이 서울병원에서는 간이 도착하는 즉시 수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환자 마취상태에서 수술대기를 해야 한다.

김민환 씨는 “수술을 통해 포기하려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삶으로 바뀌었다”며 “김경식 교수, 장재영 교수, 소민주 코디네이터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보답하는 길

간이식 수술이 더욱 어려운 이유는 수술 후 환자 관리가 그 어떤 수술보다도 힘들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술 후 잠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어요. 순천향대학과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이야말로 국내 최고의 의료진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수술은 위기의 순간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수술 후 간이식 환자는 면역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 합병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시시각각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김경식 교수는 “간이식 수술 후에는 사소한 감기에도 입원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기 힘들다. 간이식으로 연결된 혈관, 담관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시각각으로 살피며 특히 감염에 대비해야 한다”며 “김민환 씨의 경우 복막염이 오는 위기가 있었지만 의료진들의 적절한 대처로 아무 문제없이 환자가 완치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순천향대 서울병원을 찾은 씨는 지난날 과거를 회상하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실 저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술과 새 삶을 찾는 경험을 통해 건강은 내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걱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생활이 순천향대 서울병원 간이식클리닉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보답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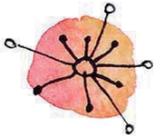
병원에서 만난 김경식 교수, 소민주 코디네이터와 함께 환하게 웃는 모습에서는 과거 삶을 포기하려던 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는 제가 아주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의료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수술 전부터 세심한 관리로 마음의 위안을 주었고 수술과 수술 후에 역시 친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았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새 삶을 찾는 만큼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는 내내 멧쩍지만 웃음을 잃지 않고 인터뷰 하는 김민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고귀한 일인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이제는 제가 아주 건강히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의료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수술 전부터 세심한 관리로 마음의 위안을 주었고 수술과 수술 후에 역시 친 가족과 같은 보살핌을 받았음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새 삶을 찾는 만큼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



류마티스내과1	
진료의사	병명
발병학명	유치회
1	- 진료 중입니다
2	- 휴양 시 병어모집시요
3	- 진료실 앞에서 기다려주세요

정성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

## “류마티스 치료의 해법, 물리학에서 찾다”

인간이 느끼는 많은 통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이 루프스와 같은 류마티스 관련 질환이다. 이런 통증은 원인을 알고도 치료하지 못하거나, 아예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고통스러운 만큼 의사 역시도 가장 힘든 분야이기도 하다. 여전히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통증들을 연구하여 자신만의 치료법을 개발해 이 분야의 명의의 반열에 오른 정성수 류마티스내과 교수. 그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The Basic)”를 강조한다.

글: 전진용 사진: 임상현

정성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순천향대 부천병원에 왔다. 그동안 수십 년간 연구해 온 임상과 치료법의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후배·제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수십 년간을 연구에 매진해 왔지만 지금도 궁금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많다. 그는 이제 닥터인생의 제2막을 닦을 올리고 있다.

정 교수는 전라남도 함평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한두 살 때부터 허약해 많은 병치레를 해야 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정 교수를 괴롭혔던 것은 중이염이었다. 현재도 정 교수가 보청기를 끼고 있는 이유다.

“중이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청력이 많이 약해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선생님의 수업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공부는 멀어지고 성적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다행히도 중학교 3학년 시절에 만난 수학과목 담당 선생님의 목소리가 커 수업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습니다.”

공부에 취미가 붙자 잘 들리지 않는 귀로도 열심히 수업을 들으려 노력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남들 이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 “어찌 보면 이 때 시작된 공부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 같네요.”라고 말한다.

### 친구의 집에서 높은 세상을 만나다

정 교수가 의사의 꿈을 꾸게 된 것은 친구 집에서 영어원서가 가득한 친구 형의 방을 본 이후부터다.

“친구의 형은 의대생이었어요. 그 수많은 원서를 보며 마치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위의 세상으로 보였던 거죠. 나도 저런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의사의 꿈을 위해 중이염을 앓으면서도 공부에 매진했다. “아버지는 가난하였지만 청렴한 공무원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꿈은 높으셨거든요. 제가 서울대에 가기를 원하셨고 저 역시 서울대를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본고사에 낙방을 했다. 그리고 서울에서 재수를 시작했다

“친구의 형은 의대생이었어요. 그 수많은 원서를 보며 마치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위의 세상으로 보였던 거죠. 나도 저런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처음 온 서울은 공부보다는 다른 호기심에 한눈을 팔게 됐으며 재수해서도 전기에 떨어졌다.

“결국 후기로 한양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대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회의로 한 6개월간을 방황도 했어요. 하지만 한 선배님의 조언이 나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죠.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에서 최선을 다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후 정 교수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의학에 빠져들었다. 막연한 의사에 대한 환상이 아닌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관심이 솟구쳐 올랐다.

### 가장 힘든 병, 루프스에 빠지다

“저의 류마티스 스승님의 권유로 류마티스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분을 따라 펠로우를 하면서 만나게 된 환자를 통해 더욱 루프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 교수가 만난 환자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는 지금은 고인이 된 전 유명 앵커 정미홍 씨였다. 그녀는 매우 심한 루프스로 사경을 헤멜 정도였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로 그녀를 살릴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지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이고 올바른 판단으로 그분을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정 교수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정 교수는 미국 예일대학으로 2년간의 유학을 떠났다.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정 교수지만, 이 시기만큼은 정말 많이 공부했다고 지금도 회상한다.

“미국은 그동안 쌓아온 여러 임상연구의 깊이, 연구를 위한 탄탄한 토대와 연구비, 연구인력 등은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 논문도 여러 편 썼어요.”



마침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한국은 정 교수를 실의에 빠지게 했다. 시기하는 이들이 생겨났고 이로 인한 불이익도 감수해야만 했다. 결국 유학 전 다니던 서울 한양대학병원을 떠나 구리의 한양대학병원으로 좌천 아닌 좌천이 되었다. 다시 서울병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정 교수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2003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실력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막상 개원의가 되고 나니 정 교수는 생각이 더욱 복잡해졌다. 루프스에는 익숙하고 그 누구보다도 치료에 자신이 있었지만, 그런 그에게 더 많은 고민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에서는 본인이 자신 있는 특정 질병 위주로 진료를 진행하지만 개인병원은 수많은 다른 분야의 환자를 봐야 합니다. 모두 다른 증세와 또 다양한 통증사례들로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힘든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책이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지겨울 만도 하지만 정 교수에는 또 다른 연구의 동기부여가 됐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정 교수는 통증에 대한 나름의 의문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

반복된 학습과 경험을 통해 류마티스 등 통증 환자를 호전시키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그 효과가 어떤 기전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밝힐 수가 없었다. 이러한 의문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논문이나 책은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호전되면서 병원은 잘됐어요. 어릴 적 가난함을 잊을 만큼

경제적인 성공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잃었어요.”

정교수는 결국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졌다. 당노는 심해지고 직접 본인을 치료했지만 혈당을 낮추는 정도 외에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다. 다시금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 뻔쩍 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The Basic)'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생명체란 무엇인가? 생명은 어떻게 살아가고, 건강을 유지하고, 병이 걸리는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고민 속에서 우연히 하나의 큰 힌트를 얻었다. 바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오스트리아의 이론물리학자인 에르빈 슈뢰딩거(Erwin Schrödinger)의 책을 통해서다.

그동안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질병을 바라봤다면, 물리학적 측면에서 생명과 질병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의학자가 물리학 자적인 시각에서 해답을 찾은 것이다.

**물리학에서 풀리지 않던 해답을 찾다**

정 교수는 그동안의 고정관념, 책속의 이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생명과 병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정 교수가 찾은 것은 바로 음식과 장이었다. 인간의 장기인 폐를 펼치면 면적이 탁구장만 하지만, 장을 펼치면 면적이 축구장만하다. 그만큼 환경적인 요인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장이라 설명한다.

“장내 미생물은 약 천조마리의 세균이 공생합니다. 사람마다 장속의 세균은 다 각기 다르거든요. 자연 분만한 아이는 엄마의 장과 자궁내의 세균을 물려받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나오는 순간의 공기 중

의 세균을 물려받게 됩니다.”

정 교수는 지나온 자신의 삶도 돌아봤다. 어릴 적부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값싸고 포만감을 주고 쉽고 금방 먹을 수 있는 라면, 햄버거, 여러 밀가루 음식, 우유 등이 그와 늘 함께 해 왔었다. 골프를 치다가도 다음 홀로 이동할 때 화장실을 참지 못해 숲속으로 뛰어갔던 기억들, 대학시절 잇몸, 눈 등에 수시로 염증이 났었던 기억들.

“장내 세포의 분포가 좋지 않으면 내독소 및 다양한 독소가 생기고 여러 염증들을 발병시킵니다. 이것이 피에 적은 양이 들어가면 만성염증 유발 및 신경기능을 나쁘게 만들고, 많은 양이 들어가면 패혈증이 되는 것이고요. 이는 당노를 생기게 하는 원인도 됩니다.”

그래서 정 교수는 그동안의 식생활을 완전히 바꿨다.

“전 이제 당뇨 약을 안 쓴지 10년이 됐습니다. 설사나 변비로 고생했었

지만 이제는 건강한 변을 보고요(웃음). 조절이 잘 되지 않던 당노가 이제는 조절이 됩니다. 이는 통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끝없이 공부하고 끝없이 질문하다**

“저만의 특별한 통증치료법을 개발하여 지금까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체의 '항상성'을 조절하고 항상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치료법과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 2017년 다시 미국 예일대로 유학을 떠나기도 했다.

“다시금 찾은 미국 유학길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책속에서 다시 원리를 찾고 이런 이론을 다시 모디파이(modify)해서 나만의 치료법과 이론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떠난 2년 1개월간의 유학을 마치고 온 곳이 바로 순천향 대학 부천병원이다. 미국에 유학을 간 것도, 다시 순천향대학 부천병원에 온 것도 사실은 같은 이유에서였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연구한 치료법을 전수할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었습니다.”

현재 부천병원에도 알 수 없는 통증으로 마약류를 맞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환자가 두 명이나 있다. 정 교수가 부천병원에 온 이후 다행히도 호전이 되고 있는 상태다.

정 교수는 “류마티스는 염증에서 오는 통증은 약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원인을 모르고 오는 통증은 약으로 호전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로 ‘햄머증후군’과 같은 치료방법을 문제로 들었다. 즉, 목수는 어떤 문제를 주된 망치로만 해결한다는 햄머증후군과 같이 의사들도 약으로 해결하려는 의사, 수술로 해결하려는 의사 등 다양하지만 이 둘을 다 적절히 하고 또 다른 방법까지 같이 할 수 있다면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행성류마티스 치료의 새로운 접근**

정 교수는 이제 류마티스에서 가장 흔한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연구에 몰입할 계획이다. 환자 한명의 발병과 진행과정을 20년 이상 지켜보면서 다른 의사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원인과 진행과정의 메커니즘을 알게 됐다. 정 교수는 자신만의 치료법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금도, 앞으로도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다.

“의학은 너무 방대해서 그동안의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물리학과 화학과 같은 자연과학, 기초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거든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을 예를 들었다. “제일 좋은 의학은 치료를 하지 않고 낫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의 몸 안에는 의사가 있다” 정 교수는 “히포크라테스의 이 명언 안에 많은 해답이 들어있다”며 웃었다.

“장내 미생물은 약 천조마리의 세균이 공생합니다. 사람마다 장속의 세균은 다 각기 다르거든요. 자연 분만한 아이는 엄마의 장과 자궁내의 세균을 물려받고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나오는 순간의 공기 중의 세균을 물려받게 됩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외과 명의 이문수 병원장이 이끄는 최강 팀워크

## 인체의 최전선, 생명의 방패 '외과'

외과는 내과에 대비되는 학문 분야이다. 내과에서는 주로 약물치료를 하는 반면 외과에서는 수술로 환자의 질병이나 상태를 치료한다. 영어로 'surgery'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어 'cheirurgike'에서 기원했다. 풀이하면 'hand(손)+work(작업)' 즉, 손으로 하는 작업이라는 뜻이다. 외과는 인체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의사들 사이에서는 가장 힘들고 고된 분야라 꺼리는 이들도 많지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모든 의료진은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있다고 말한다.

글\_전진용 사진\_임상협

모든 의학 분야가 중요하고 또한 쉬운 분야가 없지만 유독 많은 의대생들이 꺼리는 분야가 바로 외과다. 외과는 인체의 여러 가지 질환을 수술적 방법을 기본으로 치료하는 진료과로 가장 힘들고 고된 분야다. 하지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의 교수들은 하나 같이 힘들보다는 보람과 자부심을 먼저 얘기한다. 이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서울의 5대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최고 실력을 만든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외과의 치료대상 질환으로는 각종 소화기 계통의 암과 유방질환, 갑상선질환, 혈관질환, 치핵 등의 항문질환, 탈장, 기타 신체 종양, 선천성 소아질환, 그리고 급성 충수돌기염, 복막염 등의 응급 질환과 외상에 의한 손상 등이 있다. 대부분이 대형수술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많다. 많게는 1년에 600회 이상 수술을 하고 1년에 수십 번씩 수술로 밤을 새야 한다. 그야말로 극한의 직업인 셈이다. 하지만 천안병원의 외과는 이런 힘든 업무 속에서도 의료진 간 가족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유기적인 소통을 한다. 이러한 팀워크는 천안병원 외과를 국내 최고의 의료팀으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 그 중심에는 천안병원 전체의 수장이자 외과의 정신적 지주인 이문수 병원장이 있다.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관리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이 병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외과이다. 2010년부터 6회째 천안병원장을 연임하며 천안병원을 서울 5대 종합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경쟁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현재 대한위장관외과학회 초대 회장, 대한외과대사영양학회 회장, 대한중앙외과학회 부회장, 대한외과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대한위암학회 이사장을 역임했다.

천안병원 외과는 이문수 병원장을 중심으로 외과적인 수술 실력은 기본으로 하며 이외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내과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천안병원 외과는 이러한 노력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 외과의학의 연구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각 파트별 의료진은 각종 학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활동도 전 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매주 3회씩 오전에 실시하고 있는 컨퍼런스는 외과 설립 이래 단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을 정도로 연구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완벽한 팀워크를 자랑한다.



“ 천안병원 외과는 이문수 병원장을 중심으로 외과적인 수술 실력은 기본으로 하며 이외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도 내과에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 ”





백우준 연구부원장

백우준 연구부원장은 이문수 병원장을 도와 천안병원의 외과를 이끌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의대 5회 졸업자로서 지난 1996년부터 줄곧 천안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다. 백 교수는 "외과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분야지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드라마틱한 분야"라며 "환자를 소생시키면서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은 힘들고 고됨을 잊게 하는 힘"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장암의 권위자인 백 교수는 연구 활동과 후배교육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지금도 1년에 150건의 대장암 수술을 직접 집도할 정도로 외과의로서 모범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 활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현재 대한외과학회, 대한대장항문학회, 대한외과대생양학회 등에서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 활동으로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혁신형 의과대학 공동연구사업"의 단장으로 활동하며 연구하는 젊은 의과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이끌고 있다. 또한 천안병원, 순천향대, 순천향의생명연구원이 함께 의생명과학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임상 의학연구센터의 센터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는 진료, 교육, 연구의 3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연구 분야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후배들에게 좋은 연구가반을 만들어주고 교육과 연구로 가장 앞서가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백 교수는 진료, 교육, 연구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날 때 마다 후배들한테 전하는 조언이 있다. 제자들의 주례에서도 같은 조언을 한다.

"외과라는 고된 분야의 의사로서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은 본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들을 수술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고됨을 행복이라고 여기고 보람을 찾겠다고 결정하면 그것이 곧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삶이거든요. 본인의 삶의 행복은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감이라 강조했다. 외과뿐 아니라 모든 의사는 환자의 이름, 시선, 고통에 함께 공감해야 한다는 것.

"환자와의 공감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합니다. 의사가 환자와 교감할 때 비로소 완벽한 치료기 가능합니다. 의사의 주무름은 바로 환자를 돌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전공의들이 수련받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병원"이라며 "지방에 위치한 병원이지만 가족과 같은 분위기, 상대를 배려하는 팀워크만큼은 전국 그 어떤 병원보다도 뛰어나다 할 만큼 자랑스러운 병원"이라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수술을 마친 환자들에게도 매년 대장암 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일반인 모두에게 열린다. 대장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 올바른 이해를 심어주기 위함이다. 또한 대장암 밴드(BAND)를 만들어 온 라인으로 환자와 소통하며 환자와 항상 공감하고 있다.



김성웅 과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유방암·갑상선암 전문의인 김성웅 과장은 천안병원 외과의 경쟁력을 의료진의 사명감과 배려에서 찾았다. 많지 않은 인員들이 고된 외과업무와 진료를 완벽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서로간의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외과의였기에 외과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고되고 바쁜 스케줄로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과 의료진의 사명감과 상호 간 배려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 외과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유방암 250건, 갑상선암 200건 등 총 450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 언더월드'에 3년 연속 등재됐으며 권위 있는 학술상을 10여 차례 수상한 그이지만 유방암과 환자에 대한 초심은 잃을 수가 없다.

"외과라는 분야가 힘들다는 생각조차 못 할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왔습니다. 그 많은 수술가운데 성공적인 사례보다는 예후가 좋지 않았던 수술이 더 기억이 납니다. 이는 의사로서 다시 한 번 동기부여가 되고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기게 합니다."

김 교수는 그동안 외과로서 너무도 고된 삶을 살아왔다. 한 때는 오전 외래진료를 오후 3시까지 하고 오후 외래진료를 9시까지 했다. 이후에는 다시 학회활동을 했다. 이런 고된 생활은 김 교수에게 시련을 안겨주기도 했다. 헤집김 판정을 받아 3년 전 수술을 받은 것. 대형수술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이제는 완쾌됐다. 지칠 만도 한데 수술과 연구는 여전히 그의 일과다. 2007년부터 한국유방암학회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유방암학대회 사무총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전시위원장으로 활약 중이다.

"후배들에게 환자, 수술, 연구 다 중요하지만 자신의 가족과 본인을 돌보는 것 또한 잊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가족과 본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환자를 더 잘 돌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무엇보다 선후배간의 신뢰와 배려를 통해 앞으로 더 뛰어난 의료진이 되도록 만드는 데에 힘을 쏟을 것이라 강조했다.

"외과는 혼자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선후배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조직입니다. 이제는 젊은 후배들한테도 배울 것이 많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우리 외과 전체의 작은 배려와 희생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외과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배상호 교수

배상호 교수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간담체 권위자다. 2016년도에 중부지역 최초로 단일병원 의료진으로 구성된 이시팀으로 간이식을 성공했음은 물론, 가장 어렵다는 복강경간절체, 간이식, 신장이식, 생체간이식 등 모든 종류의 이식수술도 다 성공시킨 이 분야 최고 권위자다.

"외과가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외과를 선택한 것에 큰 만족을 느낍니다. 그만큼 의사로서 더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배 교수의 수술 실력은 이미 정평이 나있다. 특히 간이식분야는 의학계가 주목할 정도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외과 간이식팀(배상호·정해일)은 2016년 10월부터 연 2년간 20건의 간이식 수술을 성공해 대전 충청권 내 최단기 최다 간이식 수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간이식 수술자체가 모두 중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큰 수술이지만 그동안의 여러 경험과 팀워크로 천안병원 간이식팀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비록 서울의 빅5 병원 간이식팀에 비하면 부족한 수치지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천안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환자들은 전국에서 모인다. 배 교수는 여전히 주 10건, 연 600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대부분이 어렵고 큰 수술들이다. 하지만 수술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은 한결같다.

"체력관리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힘들면 수술이 되지 않거든요. 평균 8시간이 소요되는 이식술의 경우 의사의 체력은 필수요건입니다"

배 교수는 1년에 20회 이상 병을 새어 수술을 한다. 연 600건의 수술을 하면서 느낀 여러 경험은 바로 더 나은 수술을 위한 연구로 이어진다.

지난 2018년에는 정부의 '2018년도 상반기 생애 첫 연구사업'에 선정돼 연구를 지원받고 있다. 생애 첫 연구 사업은 연구역량을 갖춘 신진연구자(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에게 연구기회를 보장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최대 3년,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연구비가 지원되며, 연구자들은 연구기간 동안 매년 중간평가를 받고, 연구 종료 후에는 논문 저서 학회발표·특허 등을 통해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연구 개발된 지형체는 이제 제품화가 눈앞에 있다.

"외과의는 수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외과에게 수술을 잘하는 것은 기본일 뿐입니다. 수술 외에도 진단, 치료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가져야만 좋은 외과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외과의는 '멀티포텐셜리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수술과 치료에 대한 배 교수의 고민은 끝이 없다. 배 교수의 순천향대학 의료이템 경진대회 2018년 대상, 2019년 우수상 수상 경력도 이를 말해준다.

"외과의는 수술로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올려 수술에 임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과 실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손명원 교수

손명원 교수의 전문분야는 위장관질환, 비만대사수술, 복강경, 소아외과, 탈장 등이다. 천안병원에는 전임의로 2011년도 부임해 이제 10년째다. 순천향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과 레지던트도 이곳에서 했다. 그야말로 순천향맨이다.

"외과를 선택한 이유는 사람을 살리는 과이자 제일 중요한 분야, 제일 의사다운 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오히려 가장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손 교수 파트의 수장은 외과 전체의 수장인 이문수 병원장이다. 이 병원장이 손 교수에게는 가장 존경하는 롤모델이기도 하다.

"병원장님과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의학적인 교훈뿐 아니라 학자로서의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이 병원장님과 같은 최고의 외과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의사로서 주어진 큰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손 교수는 이 병원장과 여러 선배들을 통해 학술, 연구 활동이 대학병원 교수 의사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천안이라는 지방 중소도시에 위치 한 병원이지만 학술연구 활동은 그 어떤 수도권의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연구 활동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의 위상을 한 단계 더 올리는 힘이라 설명했다.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천안병원 외과가 서울, 부산, 구미병원과 함께 전 세계에서 의학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지난해 비만대사수술이 정부의 건강보험에 포함되면서 수술환자들은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수술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외과의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라 손 교수는 말한다.

"저희 천안병원에는 다양한 종류의 환자들이 전국에서 찾아옵니다. 의사로서는 힘들기도 하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주기도 합니다."

현재 부교수인 손 교수는 외과내 자신의 위치가 딱 중간이라 설명했다. 그만큼 선배를 모시고 후배를 이끌어 나가야하는 중요한 위치라는 것.

"지금껏 선배님들이 잘 다져온 우리 외과를 더욱 경쟁력 있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 헌신할 생각입니다. 후배들에게는 항상 우리 천안병원 외과는 타 어떤 병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오히려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도움의 손길 필요한 곳이라면, 그 어디라도”

라이온스클럽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이다. 한국에서는 1959년 2월 서울 라이온스클럽의 발족 이래 현재 전국 21개 지구 2,064 클럽 79,578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래의 취지와 달리 사교와 친목에 치우친 형식적인 모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라이온스클럽의 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곳이 있다. 이상만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구미의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이다.

글\_전진용 사진\_임상협

### 이상만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 회장

“지역주민 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라도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달려갈 생각입니다”

이상만 회장이 이끌고 있는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은 지역사회에서 수호천사라 불린다. 라이온스클럽의 창시자 멜빈 존스의 신념을 이어받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과 기부로 사회봉사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다. 특히 힘든 형편의 환자들과 이웃주민을 돕는데 앞장서 지역사회에서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런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과 함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곳이 순천향대 구미병원이다.

“순천향병원과는 지난 2004년부터 함께 다양한 봉사와 후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환자들을 위한 행사와 기부를 통해 작은 희망이나마 보태고 있습니다.”

순천향대 구미병원도 매년 취약계층 어린이를 위한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와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지원사업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복지기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개원 40주년을 맞아 전 교직원들이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경북 구미시에 기탁하기도 했다.

#### 구미병원과 함께 사랑을 전하다

“구미병원은 여러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이런 구미병



“

저희 회원들에게 항상 큰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와 우리 회원 모두는 작은 힘일지언정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생각입니다”

”

원을 도와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매년 1~2회 의료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미 무울면과 상호간 우정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매년 연중 1회 순천향대 구미병원과 공동 진행하는 의료봉사와 진료를 위해 내방하는 주민들에게 음식봉사와 독거노인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역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 안에서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찾다보니 구미병원의 의료봉사에도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구미병원 의료진 40여명, 우리 봉사요원 20여명이 함께 해 주민들의 건강도 살피고 맛있는 음식으로 정을 나눌 수 있어 회원 모두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의 봉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봉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애인들이 계신 집을 전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고쳐 드리거나 방안에 세면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등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자하는 일인데, 모든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더욱 값진 운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9회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김장봉사’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힘 자랑이 후원’ 등도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의 빼놓을 수 없는 사회 환원 활동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도 가까운 곳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과 이런 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약하



나마 사랑의 온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동남아에 초등학교 설립과 우물파기 봉사

지역주민들 살피기도 빠듯할 텐데 해외에까지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빈민층이 많은 스리랑카와 필리핀에는 환경이 열악해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초등학교를 설립했다.

“저희에게는 작은 도움일지언정 그곳의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게 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가방이나 학용품 등을 선물할 때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며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거든요”

이번 회기에는 회원들과 함께 라오스를 찾았다. 물이 부족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생활이 어려운 빈민지역을 찾아 우물 파주는 봉사를 위해서다. 어떤 이들에게는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회원들에게는 즐겁고 보람된 일이다. 회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힘을 보탤다.

“저희 회원들에게 항상 큰 감사를 드립니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와 우리 회원 모두는 작은 힘일지언정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갈 생각입니다”

이 회장은 “순천향병원과 같은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는 많은 단체들과 함께 지금도 소외되고 힘들어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민 누구나 우리에게 손을 내민다면 달려가 그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구미제일MJF라이온스클럽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는 단체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임에 틀림없었다. [www.lions.org](#)

순천향대 서울병원 뇌종양클리닉 조성진 교수팀

## 외과적 수술과 사이버나이프 병행 뇌종양 치료 성과 높인다

찾은 두통, 자꾸만 흐려지는 시야, 조금씩 시작되는 언어마비와 팔다리의 근력저하, 소화불량인 듯한 헛구역질 등 누구에게나 한번쯤은 겪을 법한 흔한 증상들이 뇌종양의 전조증상이 될 수 있다. 뇌종양이란 뇌조직이나 뇌를 싸고 있는 막에서 발생한 종양 또는 머리뼈나 주변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부위에서 뇌조직이나 뇌막으로 전이된 종양을 말한다.



“종양 수술을 야구에 비유하면 수술은 선발투수에 해당하나 사이버나이프는 매우 훌륭한 구원투수에 해당한다”



뇌종양은 양성과 악성으로 나누는데 양성 뇌종양은 성장 속도가 느리고 주위 조직과의 경계가 뚜렷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수술이나 방사선 수술로 완치될 수 있다. 하지만, 악성 뇌종양인 경우 수술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여 수술 후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를 하더라도 완치가 어려워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양성이나 악성 뇌종양의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수술이다. 종양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수술 중에 내비게이션 장비와 신경 감시 장치 및 고가의 현미경을 사용한다. 뇌종양이 매우 위험한 부위에 위치하여 완전제거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피하게 종양의 일부를 남겨두고 수술 후 사이버나이프나 감마나이프 같은 방사선 수술로 2차 치료를 해야 한다.

### 눈썹 위 접근법에 의한 최소침습수술 만족도 높다

조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 신경외과 교수팀(뇌종양 클리닉)은 뇌종양 수술과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하여 뇌종양 치료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양성 종양인 뇌수막종, 신경초종, 뇌하수체 종양 등 현미경과 내시경을 통하여 제거할 수 있다. 특히 조성진 교수는 피부절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눈썹 위 접근을 통하여 종양제거를 하는데 눈썹에 4cm정도의 피부절개 후 두개골을 2 × 3 cm 크기로 창을 낸 후 현미경과 내시경을 통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다. 기존의 관자놀이 접근법은 피부절개를 15~20cm 정도이고 두개골 절제는 7×8cm 크기이므로 수술 후 통증과 측두근의 위축 등에 의한 힘줄로 얼굴의 측면에 변형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 눈썹 위 접근법에 의한 최소침습수술은 수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환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접근법 자체가 전두엽의 바닥으로 접근하여 뇌건인이 적으며 종양이 시신경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현미경과 내시경을 이용하여 숨어있는 종양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크기가 작은 뇌수막종이나 신경초종인 경우에는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종양을 치료하는데 1000여 이상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실제로 이모씨(40)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이 2개월 전부터 잦

은 두통이 있다가 갑자기 심해지고, 휘청거리며 잘 못 걷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방문했다. 뇌 MRI에서 소뇌에 뇌종양이 발생하여 내비게이션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적 제거를 시행했다.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 상에서 전이성 뇌종양이 의심되어 양전자단층촬영(PETCT)을 시행한 결과 폐암이 발견되어 이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 다발성 암치료...최첨단장비 사이버나이프로 오차범위 0.5mm 이하 치료

폐암이나 유방암으로 뇌로 전이된 암인 경우에는 다발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하나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로 20개 이내의 종양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다. 사이버나이프는 일반적 방사선 치료와 달리 햇빛을 돌보기로 모으면 중심부에 불이 붙듯이 정상 뇌조직에는 최소한의 방사선 손상을 주며 종양에만 많은 방사선량이 모이게 하여 효과적으로 종양 세포내의 DNA를 파괴하여 종양을 섬멸할 수 있는 고가의 장비이나 현재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적은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사이버나이프 방사선 수술 기계는 2019년에 최신의 장비로 교체하여 더욱 업그레이드 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사이버나이프는 6개의 관철이 있는 최첨단 로봇으로 끝에 방사선이 가늘게 나와 오차범위 0.5mm 이하로 매우 정확하게 뇌종양에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쏠 수 있다. 특히 환자는 전혀 방사선을 느끼지 못하고 특수제작 된 얼굴에 딱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불편감이 없다. 조성진 교수는 “종양 수술을 야구에 비유하면 수술은 선발투수에 해당하나 사이버나이프는 매우 훌륭한 구원투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사이버나이프가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 부위의 종양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말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뇌종양 클리닉은 양성종양인 경우에 신경외과에서 수술을 시행한 후 종양내과와 방사선 종양학과와 다학제 진료를 통하여 종양에 완치에 다학제 진료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많이 찾아와 한국 의료 호부에 앞장서고 있다. ▶▶

뇌건강센터 개소... 보건복지부 지원 국책연구과제 선정

# 순천향대 부천병원, 치매 안심 국가 만들기 앞장선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지난 2월 '순천향 부천 뇌건강센터'를 열고, '치매 안심 국가 만들기'에 앞장섰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3년간 총 90억 원을 지원하는 '정밀의학 기반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 국책 사업과제에 선정됐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건강센터

뇌건강센터는 순천향미래의학관 2층에 48평 규모로 뇌건강교실, 인지검사실, 혈액검사실, 진료실, 유전체 연구시설 등을 갖췄다. 2022년 5월까지 부천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는 4천 명을 모집하여 유전인자를 포함한 치매 예측인자를 연구한다. 동시에 현재까지 개발된 인지장애 진단법과 진단기기, 인지 개선 기법 등을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 구축 목표

연구책임자인 이태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건강센터장은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전체/후성유전

체 조기 진단 키트를 개발하여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 연구 성과를 부천 지역 3개 센터를 포함한 전국 21개 치매안심센터와 공유하여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보다 쉽게 조기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사업에는 독보적인 유전체 분석기술을 보유한 기업 '이원다 이매그노믹스'와 '원오믹스'가 함께한다.

두 기업은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확보되는 유전체 자료를 바탕으로 치매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가능성 변이 연구, 경도인지장애 진단 예측 의료기기 개발 및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 등 전 과정을 할 계획 계획이다.

### MINI INTERVIEW



이태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뇌건강센터장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구축할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과 개발할 유전체/후성유전체 조기 진단 키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사회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은 병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주민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측과 예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유전체/후성유전체 조기 진단키트 개발은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이미 알려진 몇몇 유전인자를 검증하고 새로운 유전체를 발견하여 타액이나 머리카락 등 간단한 유전검사만으로 치매를 예측할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2년 5월까지 부천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인지기능 장애를 보이는 4천 명을 모집하여 유전인자를 포함한 치매 예측인자를 연구한다고 들었습니다. 연구 대상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구 참여 의사를 가진 40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이미 개발된 진단기기를 통해 치매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 혈액검사와 유전자 검사도 시행하여 더욱 정밀한 치매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중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4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뇌 MRI와 아밀로이드 PET-CT, 정밀인지 검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뇌건강교실에서 현재까지 개발된 인지 개선 기법을 활용해 지역 주민에게 치매 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효과가 검증되어 상용화된 프로그램인 '인브레인 트레이너'로 인지 개선훈련을 제공하고,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으로 개발되어 현재 그 효과를 검증 중인 치매 예방프로그램 '슈퍼브레인'으로 인지 교육뿐만 아니라 감성 운동 프로그램을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연구책임자이자 뇌건강센터장으로서 치매 환자와 가족,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지역 의료의 최종 책임을 맡은 우리 병원이 국가가 지원하는 치매 예방사업을 부천 지역을 중심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큰 두려움을 안겨주는 질환이자 노화의 증상입니다. 또한, 한번 걸리면 좋아질 수 없다고 체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려워만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치매는 예방할 수 있고 증상도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인지장애 개선 및 치매 예방을 위해 모든 연구 결과와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책연구사업을 통하여 우리 부천 지역이 치매 안심 국가의 초석이 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송금종 교수,  
TV 의학드라마 의학자문의로 활약

## '낭만닥터 김사부2'의 진짜 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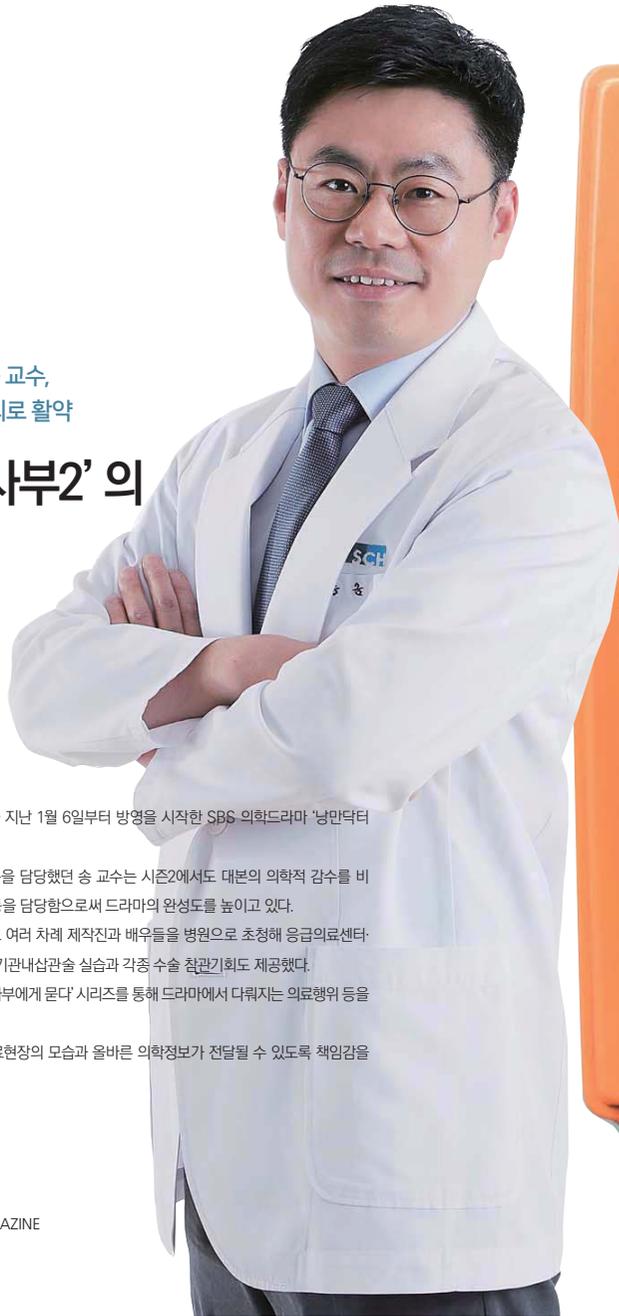
순천향대 천안병원 외과 송금종 교수가 지난 1월 6일부터 방영을 시작한 SBS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2'의 의학자문의로 활약했다.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1에서도 의학자문을 담당했던 송 교수는 시즌2에서도 대본의 의학적 감수를 비롯해 수술 등 의료행위들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함으로써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송금종 교수는 또 드라마 제작을 앞두고 여러 차례 제작진과 배우들을 병원으로 초청해 응급의료센터, 수술실 등에서 심폐소생술·피부봉합술·기관내삽관술 실습과 각종 수술 참관기회도 제공했다.

이외에도 언론매체에 연재되는 '사부의 사부에게 묻다' 시리즈를 통해 드라마에서 다루지는 의료행위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송금종 교수는 "시청자들에게 실제 의료현장의 모습과 올바른 의학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자문에 임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대구·경북지역서 유일

# 순천향대 구미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3회 연속 최우수 S등급 획득

순천향대 구미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2015년과 2017년에 이어 2019년에도 S등급을 받아 대구·경북지역에서 유일하게 3회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출장 검진팀



직업환경의학과 조성용 교수



김현준 산업위생기사



ICPE-9820 장비

특수건강진단은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며, 고용노동부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준향상을 위해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특수건강검진 담당 전문의의 판정능력과 신뢰도의 평가에서 만점

이번 평가는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인 전국 212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의 관리 ▲결과 및 판정 등에 대한 신뢰성 ▲장비보유 현황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후 관리의 철저 및 관리 등 4개 분야와 73개 항목 및 행정처분 이력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구미병원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특히, 특수건강검진 평가항목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특수건강검진 담당 전문의의 판정능력과 신뢰도의 평가에서 특수건강검진 담당교수 3명의 판정능력과 신뢰도 평가가 만점을 받음으로서 명실 공히 공단근로자와 지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최고의 거점병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검자 편의 증진에 최선을

또한 구미병원에서는 매년 검진 후 사업장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진에 대한 불만 및 고충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한 수검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어 문진표, 개인표 등을 비치하여 외국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검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유선건자(D1, D2, DN)를 대상으로 직접 사업장을 방문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설명하고 개인의 결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진행하고 있다.

### 화학분석실의 특수장비와 산업위생관리기사의 정확한 분석력

한편 구미병원 화학분석실에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분석능력을 가진 3명의 산업위생관리기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 시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우수한 장비를 보유(IC 2대, HPLC, AA, ICPE, IC, UV-vis)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ICPE(SHIMADZU, ICPE-9820) 장비는 오트샘플러를 이용하여 한 번에 많은 양의 증검속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임한혁 병원장은 "앞으로도 사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퇴행성 관절염,  
심하지 않으면 내시경 연골 복합 수술 권유

“교수님,  
도가니 살려줘  
고마워요”

“도가니 아시죠? 도가니탕에 들어 있는 그 도가니요. 환자분 도가니가 찢어졌어요.” 도가니는 소의 무릎 뼈와 그 주변 연골과 인대, 힘줄 등을 이르는 부위로 사람의 무릎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기도 한다. 도가니탕을 먹으면 도가니가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드시는 음식이기도 하다. 진료를 하다가 무릎의 연골 중의 하나인 반월상 연골이 손상된 환자에게 설명할 때 이해를 잘 못하거나, 연세가 많은 환자분들에게는 도가니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면 대화가 쉽게 이어질 때가 많다.

무릎 관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연골이 있다. 반월상 연골과 관절연골이다. 반월상 연골은 반달 모양의 연골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초승달에 가까운 모양을 하고 있다. 반월상 연골은 체중을 전달하고 외력을 분산시켜 주며, 관절연골을 보호하고, 윤활 기능을 하는 등 관절의 안정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구조물이다. 관절연골은 무릎 관절 위아래에 뼈를 덮고 있는 연골로 보다 복잡한 기전이라는 하지만 단순화 시켜 말해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닳게 되면 뼈가 노출이 되고 이를 퇴행성 관절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관절의 연골은 손상이 되면 비슷한 종류의 연골로 대체하거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원래의 연골로 회복시켜주는 약이나 수술을 없다. 따라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는 연골을 대체하거나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다.

인공관절은 최근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수술 후 기능과 예후가 매우 좋아 많은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건강했던 과거의 내 무릎으로 돌아가기는 어렵고 약간의 이물감이나 제약은 있다. 따라서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 아닌 연골 손상 환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고 있다.

**심하지 않을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연골 복합 수술**

2년 전에 60대의 여자 환자분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외래로 오셨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고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권유 받은 상태였다. 환자분은 가지고 온 자료를 보여 주시며 “나 진짜로 무릎을 잘라서 관절을 갈아야 해요? 뼈를 막 잘라야 해요? 나 무서운데, 뼈 자르기 싫은데.”라며 흡사 소의 눈처럼 큰 눈망울을 끄덕이셨다. 환자분의 방사선 사진과 자기공명영상(MRI) 사진을 확인하니 반월상연골 파열과 함께 관절 연골 손상이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었다. 하지만 관절연골의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반월상 연골 파열이 복합이 가능한 상태로 관절경을 이용해서 파열된 반월상 연골을 봉합해서 고정해 준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환자분, 많이 무서우세요? 그러면 뼈 자르지 말고, 카메라로 관절 보면서 환자분 도가니를 꿰매드릴게요.” 환자분께는 인공관절 수술이 아닌 관절경이라고 하는 관절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을 이용한 연골 복합 수술을 권해드렸고 환자분은 뼈를 자르지 않고 도가니를 살릴 수 있다며 기뻐하며 수술에 동의하였다. 며칠 뒤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수술 후 6주간 착용했던 보조기를 풀면서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관절에 좋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라는 교육과 함께 환자의 치료를 마무리 하였다.

얼마 전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인근의 수영장을 갔다.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인사를 하였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해 우물쭈물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더니 물안경과 수영모자를 벗고 웃으시는데 2년전 수술 했던 그 환자분이였다.

도가니 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살려준 도가니 오래 쓰기 위해 수영 열심히 한다면 자랑도 하셨다. 자신의 도가니가 담긴 이 수영장은 도가니 탕이라며 크게 웃으셨다. 배만 나와 볼품없는 수영복 차림 때문인지 환자분의 아재 개그 때문인지 약간의 민망했지만 따뜻했던 웃음의 도가니 탕이었다. [www.sch.ac.kr](#)



김용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스테로이드 약물을  
무분별하게 장기간 사용 말아야  
“부신기능저하증”을  
아시나요?”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의료 정보에 대한 지식이 대중화되어 일반인들도 우리 몸의 여러 장기와 기관들이 각각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알게 됐다. 하지만 많은 장기 중에 '부신'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의 어디에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부신(adrenal gland)'은 고깔 모양으로 생겨 콩팥의 위쪽에 붙어있는 작은 기관이다. '부신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일을 한다. '부신기능저하증'은 이 부신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각종 부신 호르몬들이 결핍된 질환을 말한다.

**코티솔이 결핍되면 면역질환에 취약해 적절한 보충 필요**

여러 부신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각자 중요한 일들을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다른 장기나 기관들이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신 호르몬이다. 코르티솔은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으로 우리 몸의 간, 근육, 지방세포 등에 작용해 각종 스트레스에 대항하며 체내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스트레스란,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감염과 같은 전신적·화학적 스트레스를 모두 일컫는다.

부신기능저하증에서는 코르티솔이 결핍되어 이러한 스트레스에 우리 몸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심혈관계, 대사계, 면역계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 부신기능저하증의 초기 증상으로는 만성적인 피로, 전신 쇠약, 식욕 부진, 오심, 저혈당과 같은 증상들이 있으며, 결핍되어 있는 코르티솔을 적절히 보충해주지 않을 경우 각종 감염이나 면역질환에 취약하게 되어 생명 유지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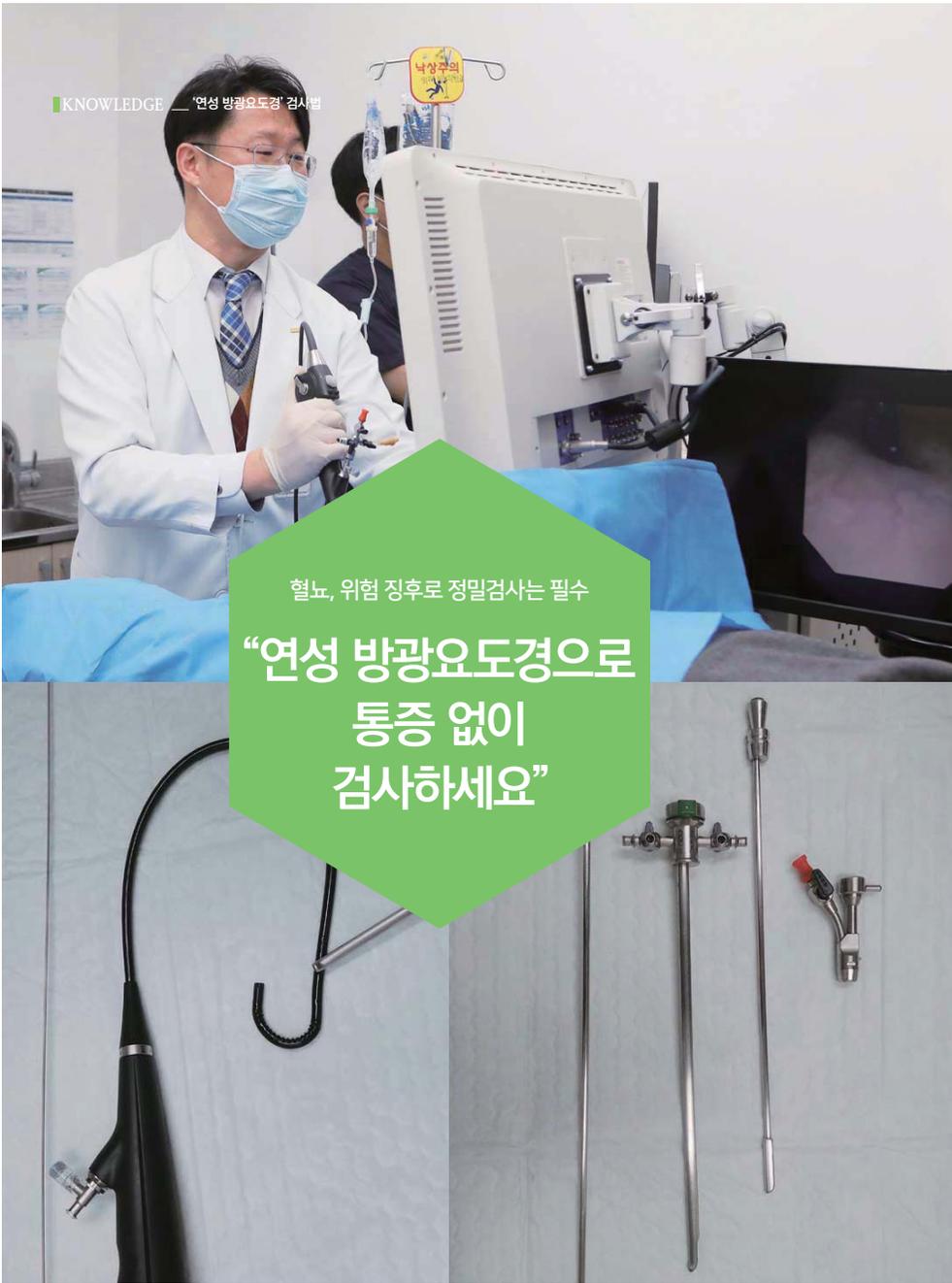
**스테로이드 약물 장기간 복용 또는 이유 없이 피로감 느끼면 '부신기능저하증' 의심**

부신기능저하증은 결핵과 같은 감염 질환이나 뇌하수체 질환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그중 가장 흔한 원인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해 우리 몸이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그 부작용이 알려지기 전에는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널리 사용됐다. 지금도 관절 질환, 피부 질환, 알레르기 질환에 많이 쓰이며, 면역 질환 등 최귀질환 치료와 항암치료에도 함께 많이 쓰이고 있어 우리에게 필수적인 약물이다. 그러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성분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부신 질환을 초래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스테로이드 약물을 장기간 사용한 적이 있을 경우, 다른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기운이 빠지고 입맛이 없어지면 부신기능저하증을 한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최덕현  
순천향대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부드럽게 꺾이는 연성 방광요도경

단단한 금속재질의 경성 방광요도경

소변에서 피가 보여 큰 걱정을 안고 진료를 찾는 환자들이 많다. 혈뇨의 주된 원인은 방광, 신장의 악성종양, 결석, 감염, 손상 등이다. 이외에도 내과적 질환으로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 혈뇨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징후다. 한 번만 발생했어도 심한 정도와 상관없이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성인은 다른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악성종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시경으로 요도-방광 관찰**

혈뇨의 원인 확인을 위한 검사법 중 하나가 방광요도경이다. 방광요도경 검사는 요도로 내시경을 삽입해 요도, 방광을 관찰하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다. 혈뇨 외에도 ▲방광암, 요도암, 상부요관암 환자에서 재발여부 관찰 ▲요세포검사 이상 ▲반복되는 요로감염, 배뇨곤란, 요실금, 요도협착의 평가 ▲외상, 방광결석 제거, 혈정 액중 검사, 영상검사서에서 관찰된 방광 이상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경성 요도경, 시술 용이하나 통증 커**

방광요도경에는 경성 방광요도경과 연성 방광요도경이 있다. 경성 방광요도경은 딱딱한 직선의 막대기 형태로 세척액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 시아가 좋다. 또 더 넓은 작업채널로 여러 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견고한 디자인으로 한 손으로 쉽게 제어할 수 있어 다른 손으로 보조기구를 조작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요도가 길고 굵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 삽입 시 통증을 유발한다.

시술 전 국소마취제가 섞여 있는 윤활제를 5~10ml 정도 요도에 주입하지만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광범위한 내시경적 시술을 시행할 때나 시술시간이 길어져거나 침습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척수마취나 전신마취가 필요할 수 있다.

**연성 요도경, 통증 적고 관찰 용이**

연성 방광요도경은 위 내시경에 사용되는 기구와 비슷한 모습이다. 특히 남성에서는 요도의 굵직한 부분을 지날 때 부드럽게 삽입이 가능하고, 요도 내에서도 자유자재로 휘어져 검사 중 발생하는 통증이 경성 방광요도경에 비해 매우 줄었다는 것이 환자들의 주된 반응이다. 또 방광요도경의 끝부분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어서 방광 내부 구조를 골고루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항상 연성 방광요도경이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성 방광요도경은 혈뇨가 심한 경우와 방광 내에 혈액덩어리, 이물질, 결석 등이 있을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경성 방광요도경은 내시경 진입 상태에서 바로 시술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연성 요도경, 고가장비로 일부 병원만 보유**

현재 연성 방광요도경 검사와 기존의 경성 방광요도경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역시 두 검사법 모두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의 연성 방광요도경을 도입할 동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2016년부터 연성 방광요도경을 도입했으며, 현재 연성 경성 방광요도경 검사 모두 가능하다. 이전까지 경성 방광요도경으로 검사를 받다가 연성 방광요도경 검사를 받은 환자들은 검사 전 고통에 대한 걱정이 해소됐다고 크게 만족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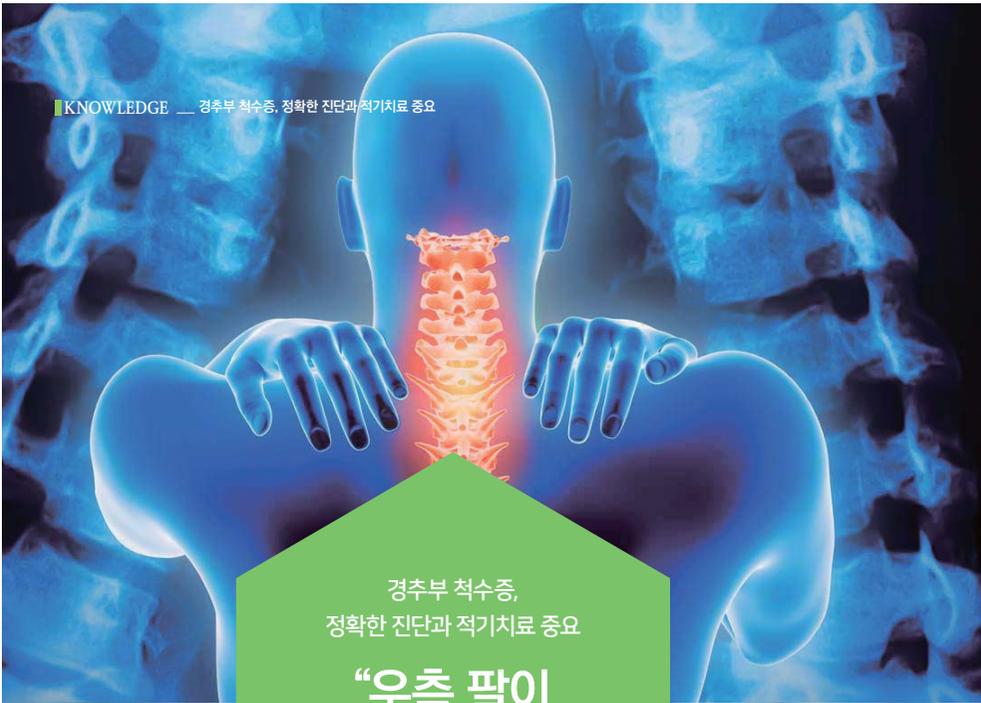
현재까지도 다수의 대형병원에서 경성 방광요도경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좁은 요도를 따라 삽입되는 금속 재질의 굵고 딱딱한 내시경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방광암처럼 정기적으로 방광 내부를 추적 관찰해야 하는 경우 연성 방광요도경은 유용성이 높은 검사장비다. 혈뇨로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연성 방광요도경 검사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양희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남성 요도 모식도(2번의 굵곡)



경추부 척수증,  
정확한 진단과 적기치료 중요

**“우측 팔이  
마비되고 젓가락질이  
잘 안 돼요”**



다른 질병으로 외래를 오던 환자가 전화 예약도 하지 않은 채 당일 접수로 외래를 방문하였다. 손의 사용이 잘 되지 않아서 근처 수부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손목터널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받고 수술을 위해 외래를 방문하였다. 자세히 이학적 검사를 해 본 결과,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보이는 티넬징후 (Tinel sign) 및 팔렌검사 (Phalen test) 모두 음성이면서, 전반적으로 손의 근력이 약화되어 있으며 심부건 반사(deep tendon reflex)가 항진되어 있었다. 또 다른 환자는 갑작스런 우측 팔의 마비로 타병원 신경과를 방문하여 뇌졸중 의심 하에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 소견이 없어서 본원을 방문하였으며, 이 환자 역시 위의 환자와 같은 이학적 소견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경추부 척수증이었다.

이에 경추부 MRI 및 CT 촬영을 한 후, 응급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두 환자를 수술 후 1달 만에 모두 손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경추 척수증(myelopathy)은 많은 의사들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질병이다.

**뇌졸중이나 허리 척추 질환으로 혼동...조기에 적절한 치료 받아야**

경추 척수증의 흔한 초기 증상은 손의 둔한 감각 혹은 저린 느낌을 동반한 이상 느낌이다. 이후 점차 진행되는 손의 근력 약화, 부자연스러운 손놀림 및 미세 작업의 장애이며, 특히 단추 잠그거나 젓가락질이 힘들어진다고 호소한다. 이런 증상은 목 디스크와 아주 비슷하지만 목의 통증 및 손 저림 증상도 목 디스크처럼 심하지는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비가 너무 진행된 경우도 있다.

또한 다리에 둔한 감각이나 저린 느낌이 있어서 허리 척추의 질환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몸의 균형 이상으로 보행이 어려워져서 뇌의 질환으로 혼동하기도 한다. 또한 하지의 근력 약화로 인한 보행 장애, 균형감각 및 지각기능 장애가 발생하는데, 이는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 특히 진단의 열쇠가 되는 척수증 손(myelopathy hand) 증상이 있는데, 이는 넷째, 다섯째 손가락을 펴기가 힘들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빨리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중추 신경이 눌리고 있기 때문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로 잘 호전이 되지 않고, 간혹 목에 충격을 받으면 목 이하에 심한 마비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목 디스크와 많이 다른 점이다. 경추 척수증 환자의 경우 대부분에서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고, 수술 이외의 방법으로는 증상의 호전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기 때문에 대개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예후 및 결과가 좋고, 가능한 빠른 시기에 하는 것이 마비의 진행을 막고 회복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 환자의 경우, 증상이 서서히 나빠지기 때문에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에서 증상을 늦게 알게 되어 수술을 해도 그 결과가 썩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수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경추 척수증에 걸린 환자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결국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환자가 힘들어지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행도 어려워지고, 손의 사용이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경추 척수증이란 질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가능한 한 손과 발에 많은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



김대근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정형외과 교수

**경추 척수증(Myelopathy) 원인 분류**

- 1.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로서 경추의 척수 중심을 압박하게 되어 증상을 초래한다. 일반적인 목 디스크는 경추에서 손으로 가는 말초 신경이 눌리는 신경근병증인 반면에, 경추 척수증의 경우에는 경추의 가운데 부분인 중추 신경이 눌리게 된다.
- 2. 경추증성 척수증**  
경추골의 변성 변화에 의한 신경 압박이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추간판의 변성으로 추간판 간격이 감소되고 후관절성 및 인대의 이완으로 불안정성이 생기고 이에 대한 조직 반응으로 추간판 변연부의 골극 형성과 활액막의 비후 등이 경추부 척수를 압박하여 증상을 초래하게 된다.
- 3. 후종인대 골화증**  
경추 척추체 후방 부위에 수직으로 연결된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부르는데, 이 인대가 점차적으로 골화를 이루면서 척수를 압박하는 병이며, 주로 우리나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호발하는 병이다.
- 4. 그 외** : 경추부 골절 및 1-2번 경추 사이에 불안정성 등이 있다.

구미병원 최첨단 MRI장비

# MAGNETOM Skyra

빠르고 정확한 진단, 3T MRI

넓은 검사 출입구로

폐쇄 공포증 해소와 환자 친화적 장비



## MAGNETOM Skyra 특징

70cm의 넓은 출입구와 173cm의 짧은 길이로 폐쇄 공포증 완화나 소아 환자 검사 시, 환자의 불안감을 감소시킵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보다 빠른 검사와 고해상도 영상 기술로 정확한 영상 획득 가능.

## MAGNETOM Skyra 검사영역

### 뇌 및 혈관 검사

- 뇌경색, 뇌출혈, 뇌혈관 질환(MRA), 뇌기능적 영상(MRI), 간질, 조발성 치매 진단
- 다양한 두경부 질환 진단

### 척추 검사

- 퇴행성 질환, 디스크 탈출증, 척수 종양 등 진단
- 추간판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척추 전방 전위증을 포함하는 모든 척추 질환 진단

### 근 골격계 검사

- 골수염, 관절 및 인대 손상,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외상성 질환 진단
- 암 전이 등의 조기 진단 및 악성연부 조직 종양의 병기 결정
- 선천성 기형, 습관성 탈구, 무월경 과사 진단

### 상복부 및 하복부 검사

- 복부 내 고형 장기 및 소화관의 영상 진단
- 간암, 전이성암, 췌장암, 담도관암, 혈관종 등 진단
- 신장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의 진단 및 병기 결정과 치료 성과 판단



이현우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임의

## 순천향의 '예의' 중시 학풍이 나를 만들어

서울대병원서 순천향 위상 높여...동창회 학술상 수상

글:전진용 사진:임상협

이현우 서울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전임의는 현재 부교수다. 올해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임명예 예정되어 있다. 크기 않은 키에 차분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이 부교수의 성품이 묻어났다.

"사실 처음부터 의사의 꿈을 끈 것은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성적이 잘나와 선택한 것이 의대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순천향대학교 의대에 와보니, 제가 의사와 잘 맞더라고요(웃음)"

성격상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 이 모든 게 의대와는 잘 맞았다. 이렇게 순천향대학교 의대에서의 생활은 이 부교수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웠다. 무엇보다 순천향대학교 의대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 '예의' 중시하는 학풍, 새로운 도전의 힘이 되다

"순천향대 의대는 저에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나는 '예의를 중시하는 학풍'이었습니다. 뒷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교수님에 대한 예의 선배에 대한 예의, 동기에 대한 예의, 후배에 대한 예의 모두를 포함합니다. 순천향대 의대에서는 예의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는 훗날 지금의 서울대병원에서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학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더 큰 세상으로의 도전을 상상하게 됐다. 좋은 교수들을 만나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 교수의 조언으로 과감히 서울대학교 병원을 택했다. 그만큼 성적은 우수했다.

"아주 예전에는 몰라도 순천향대학 의대 출신이 서울대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를 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실 조금은 두렵기도 했고 주눅도 많이 들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실제로 접해 본 서울대학교병원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차별도 텃세도 없었다. 순천향대학교 시절부터 내과의 관심이 많았던 이 부교수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호흡기내과로 진로를 선택했다. 공부하기를 즐기는 그에게 호흡기내과는 공부할 것이 많은 재미있고 매력적인 분야였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얻은 또 하나가 있다면 훌륭한 교수님들이었습니다. 서울대에 와서 힘들거나 막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스승님들과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면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사람의 숨을 쉬는 것을 관장하는 호흡기는 위급한 환자가 많다. 3분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목숨이 위태롭기도 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짧은 시간 만에 환자를 살리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교수한테는 보람이자 기쁨이었다.

### 세편의 논문으로 2020년 동창회학술상 수상

시간이 날 때는 공부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글 쓰는 걸 좋아해 논문도 여러 편 썼다. 이 논문들 중 3편은 유력 학술지에 게재됐다. 그 연구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

"운이 좋은 건지, 관심이 있었던 연구방법론이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덕분에 순천향대동창회의 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노력하는 의미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연구 활동은 더욱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대한내과학회, 대한호흡기결핵학회 등에서 활동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기도질환, 폐암에 관심이 많아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더 힘을 기울일 생각이다.

"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성과를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의사 인생 시작 열어준 나의 모교 순천향대

이 부교수는 올해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인턴동기로 만난 예비신부와 미래를 약속했다. 순천향대학교의 스승들과 선배들의 조언이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도전이었지만 이 도전을 조언해주고 응원해주신 스승님들과 선배님들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 지금의 나의 인생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모든 의사로서의 인생, 한 남자로서의 인생의 시작은 순천향대학교, 저의 모교에서부터라고 생각합니다."



### 이 부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조언한다.

"순천향대학교라는 너무 선하고 편한 울타리가 있어 그 밖을 나가기가 사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더 크고 넓은 곳으로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순천향대학교 출신임을 보여주고 성공하는 것도 바로 우리 모교를 더욱 빛나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현우 부교수는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것이 뜻대로 안되거나, 뜻하지 않았는데 시련이 올 때가 많다"며 "하지만 그 순간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려서 나아간다면 본인이 원했던 그 이상의 더 큰 선물로 돌아올 것"이라고 후배들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m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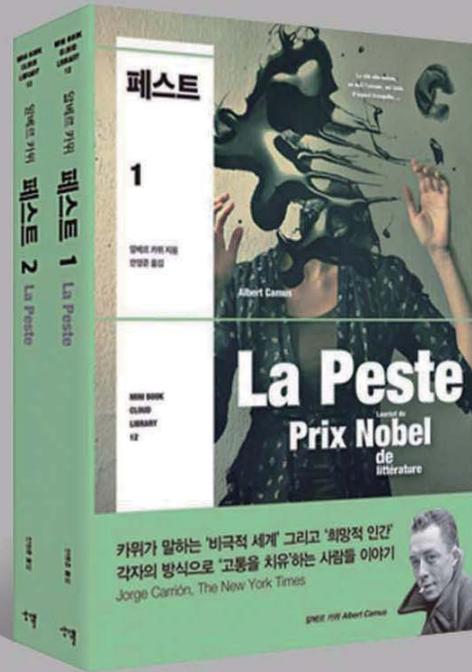
봉쇄된 도시에서 소시민들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소설 '페스트'의 국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알베르 카뮈의 1947년 작품으로, 우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교보문고에 따르면 2월 '페스트' 판매량은 전년 대비 463% 증가했다. '페스트'의 재조명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카뮈는 2차 세계대전 중에 '페스트'를 구상했다. 소설 속에서 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종교계는 전염병이 신의 형벌이라 주장하며, 배급품을 빼들러 비싸게 파는 암거래가 판친다. 70년 전 작품이지만 지금의 현실을 훤히 내다본 듯하다.

글. 박종선 인문학칼럼니스트

# 코로나19 VS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

한국은 물론 일본·이탈리아 등 세계 곳곳서 베스트셀러로 등극



페스트의 창궐로 봉쇄된 도시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색적인 소설이 있다. 바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La Peste 1947)다. 이 소설은 '간헐'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비극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역병 퇴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이야기다. 거기에는 비극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체는 다른 아닌 인간 자신이라는 강렬한 작가 정신이 깔려 있다.

'곧 종식될 것'이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 이미 전국 각지에 소규모 봉쇄(이른바 코호트 격리)는 상당한 수에 이른다. 이번 감염병의 진원지인 중국의 우한은 도시 전체가 아예 통째로 봉쇄되고 있다. 크든 작든 봉쇄된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마침 페스트의 창궐로 봉쇄된 도시의 실상을 생생하게 그려낸 이색적인 소설이 있다. 바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La Peste 1947)다. 이 소설은 '간헐' 사람들이 그 엄청난 비극에 대해 다양하게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역병 퇴치를 위해 힘을 모은다는 이야기다. 거기에는 비극적 운명에 저항하는 주체는 다른 아닌 인간 자신이라는 강렬한 작가 정신이 깔려 있다.

## 쥐로부터 시작된 '페스트'

소설의 무대는 인구 20만의 오랑시(市). 1947년 4월 16일 죽은 쥐들이 발견되기 시작한다. 4월 말에 사람들도 죽기 시작한다. 하루 수십 명에 달하던 사망자가 다소 줄면서 도시는 이내 활기를 찾는다. 그러나 다시 사망자 수가 치솟자, 순식간에 페스트는 '우리를 전체의 문제'가 된다.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도시는 봉쇄된다. 모두가 '독 안에 든 쥐'가 된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폭증한다. 일단 의사의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는 강제 입원되고 가족은 강제 격리된다. 종종 경찰이 출동하여 무력으로 환자를 탈취하는 일도 벌어진다. 도시는 구급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 화장터에서 내뿜는 연기, 도시의 관문(關門)에서 들리는 총성 등이 뒤엉키는 '생지옥'이다. 식량보급 제한, 휘발유 배급, 절전, 등화관제 등은 물론이다. 이 재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충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도피적 태도다. 기자 랑베르는 이 도시에 취재차 우연히 들렀다가 발이 묶인다. 그는 파리에 두고 온 젊은 아내를 그리워한다. 그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한다.

둘째, 초월적 태도다. 신부 파블루는 이 재앙이 '사악한 인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규정하며, '아무리 잔인한 시련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유익할 것'이라고 역설한다. 전통적인 기독교적 입장이다.

셋째, 반항적 태도다. 의사 리유는 최선을 다해 이 역병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체념하거나 신에게 기대지 말고 인간 스스로 운명에 도전, 즉 반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유는 소설의 서술자(주인공)이다. 그는 최선을 다해 소임을 완수하는 성실한 의사다. 따라서 소설은 그의 반항적 도전을 통한 역병 퇴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소박한 소시민의 헌신과 봉사 영웅적 면모

페스트가 건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현장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진다. 마침 사회 활동가 타루가 리유를 찾아온다. 리유는 파블루 신부의 신학적 해석을 겨냥하여 "그 병고의 유익을 증명하기 전에 우선 치료부터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민간 보건대를 결성한다. 그때부터 리유는 의사로, 타루는 보건대 책임자로 역병 퇴치에 헌신한다.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리유와 타루는 "어떤 방법으로도든 싸워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는다든가, 결정적인 이별을 겪는 아픔을 막아주자"고 더욱 굳게 다짐한다. 그런 생각은 그저 당연한 것이어서 별로 칭찬을 받을 만한 것도 못 된다. 그런 일에는 어떠한 영웅도 필요 없다. 그저 소박한 시민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실제로 영웅적인 면모라고는 전혀 없는 그랑도 보건대에 들어온다. 그랑은 당장 지위조차 불안정한 말단 공무원이다. 그는 이혼하고 떠났던 아내를 그리워하며, 엉터리 소설이나 꼬적이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물이 퇴근 후 매일 저녁 보건대에 들러, 통계 작성 업무를 맡는다. 그의 성실성으로 인해 보건대의 활동은 행정적으

이 소설에는 '위대한' 인물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모두 소시민이다. 그량이 대표적이다. 그는 리유를 찾아와 보건대에 합류 의사를 밝히며, "페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어! 민사가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영웅주의를 배격하며, 소시민들의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원동력을 강조한다.

로 탄탄한 기반에 올라선다.

기자 랑베르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도시를 빠져나갈 공리를 한다. 그는 리유를 찾아와 무감염 증명서 발급을 요구한다. 리유가 거부하자, 랑베르는 "나는 이 고장 사람이 아니다"라고 항변한다. 리유는 "이제는 (당신도) 이 고장 사람이다"라고 대꾸한다. 차츰 랑베르는 '혼자만 행복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자책하게 된다. 그는 탈출을 단념하고 보건대에 합류한다.

파블루 신부는 신자들이 상대로 설교를 하면서도 보건대에 들어온다. 그리고는 병원과 페스트가 들끓는 장소를 떠나지 않다가, 안타깝게도 11월에 죽고 만다. 또한 예심판사 오통은 아들을 잃고 자신은 격리된다. 하지만 격리가 해제되기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봉사 활동을 한다. 그는 소설에 등장하는 최고위직 인물이지만, 재난 앞에서 헌신적인 면모를 보인다.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원동력**

한편 어디에나 파괴적인 인물이 있게 마련이다. 코타르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다. 다행히(?) 페스트의 창궐로 수사망이 느슨해지지 않게래, 불법 알선 등으로 돈을 벌며 흥청망청한다. 그는 "나는 훨씬 지내기가 좋아졌다... 페스트 안에 있는 게 더 편하다"라고 지껄인다. 그는 재앙을 즐기는 '유일한' 인물이다.

그해 연말에 노(老)의사 가스텔이 혈청 개발에 성공한다. 이로 인해 사태가 극적으로 호전된다. 그렇다 감염되었다가 살아난다. 하지만 혈청도 안 듣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오통은 감염으로 끝내 죽고 만다. 그는 희망에 들뜬 시기에 희생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이듬해 1월 말 페스트는 거의 종식된다. 그런데 정작 타루는 혈청주사를 맞지 않아 감염사 한다.

이 소설에는 '위대한' 인물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모두 소시민이다. 그량이 대표적이다. 그는 리유를 찾아와 보건대에 합류 의사를 밝히며, "페스트가 생겼으니 막아야 한다는 건 뻔한 이치입니다. 어! 민사가 이렇게 단순했으면 좋으련만!"이라고 말한다. 작가는 영웅주의를 배격하며, 소시민들의 소박한 헌신이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원동력을 강조한다.

리유가 "모든 일은 영웅주의와 관계가 없다. 그것은 단지 성실성의 문제다"라고 말하자, 랑베르는 "성실성이 무엇인가?"고 되묻는다. 리유는 "그것은 직분을 완수하는 것이다"라고 답한다. 세상은 신적인 계시나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히 완수하는 소시민들의 분투에 의해 개선된다는 것이 작가의 강렬한 문제의식이다.

작가가 처음에 구상한 제목은 '페스트가 아니라 수인(囚人)들'이다. 한마디로, 이 소설은 '갈탄'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그 감금을 주도적으로 풀어 나가는 이야기다. 여기서 페스트는 전쟁이나 부조리한 세상을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페스트'는 그냥 '페스트'다. 그렇게 읽어와 감동과 교훈이 더 생생하다.

소설 속에서 누군기의 푸념이 요즘 우리가 겪는 현실의 정곡을 찌른다. "페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이지만, 페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페스트 환자예요."

지금 우리는 엄중한 사태에 처해 있다. 외신에 따르면, 봉쇄된 우한시는 '생지옥'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이런 재앙을 극복해 나가는 주역은 '주어진 직분'을 성실히 완수하는 전문가와 시민들이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선부는 공명성은 되레 일을 그르치기 쉽다. 직분은 누구에게나 있다. 자신의 침방울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것도 어엿한 직분이다. 

'씩 다 갈아엎은'(사랑의 재개발' 중) 트로트의 새 시대가 열렸다. 송가인으로 시작한 트로트 열풍은 유산술(유재석)을 지나 '미스터트롯'에 정점을 찍고 있다. 중장년층은 물론 20~30대로 대표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1990년대 중반)까지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뉴트로'(New+Retro) 트렌드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이다.

글\_고승희 기자

# 대한민국은 지금 트로트 전성시대

## 뉴트로 열풍 타고 부활

요즘 가요계에서 가장 핫한 현상은 뭐니 뭐니 해도 트로트 열풍이다. 트로트가 옛날 노래, 나이 든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선입견이 깨지며 여러 세대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시발점은 TV조선 '미스트롯'이었다. '미스트롯'은 TV조선 프로그램 사상 최고 시청률(18.1% '닐슨코리아 기준)을 기록하며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후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3월 5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의 1, 2부는 29.138%, 33.836%의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 '뉴트로' 트렌드와 젊어진 트로트

'트로트 열풍'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끄는 '뉴트로'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새로운 복고', '요즘 옛날'로 불리는 '뉴트로'는 비단 국내에서만 일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과거를 모르는 10~20대들은 옛 것에서 신선함을 발견하고 열광한다.

과거의 것을 힙(Hip) 최신 유행)하게 느끼는 것은 현재 그들이 향유하는 콘텐츠가 비슷비슷하고, 누구나 쉽게 소비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쉽게, 누구나 즐기는 문화를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 성향 중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것, 색다른 것, 남들과는 다른 것에 이끌린다는 점이다. 그 대열에 트로트도 들어간 것이다. 이미 중장년층은 트로트를 꾸준히 소비했지만, 젊은 세대가 소비하게 된 것은 뉴트로 트렌드의 영향이 크다.

트로트는 힙함, EDM 등 웬만한 장르에 얹어도 잘 어울린다. 가요에는 장르가 달라도 '뽕끼'가 깔려있고, 그것이 성공의 잣대로 이야기됐던 때가 있었다. 트로트는 보편적인 장르들을 우리 식의 특수한 방식으로 해석해 어색함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장르다. 트로트가 정통 장르를 파괴하고, 시대를 타는 요소를 끌어들이고 있다.

트로트의 부활은 누구보다 트로트 가수들이 실감하고 있다. 한 때는 대중음악의 중심이었으나, 오랜 시간 소외됐던 트로트는 마침내 새로운 미래를 맞고 있다. 송가인, 유재석을 계기로 트로트라고 해서 안 될 것도 없다는 점을 발견하고, 대중과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특정한 장르가 특정한 세대에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실했다. 트로트도 음악 시장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 의료원 / 순천향대/ 의대동창회

### 굿네이버스와 캄보디아 모자보건증진 사업 지원 '의료진 교육, 자문, 프로그램개발 등'



순천향대병원 중앙의료원(원장 서유성)과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28일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청원홀에서 '캄보디아 동북부 소외지역 모자보건 사업 (2019-2023/700만불) 착수회'를 개최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이미경) 사업으로 진행하며 캄보디아 동북부 산악 지대의 의료소외지역인 '라타나끼리'와 '몬톨끼리'의 모자보건증진이 목표다. 주관사인 굿네이버스와 순천향대학교중앙의료원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두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모성 교육, 신생아 관리 교육, BEmONC(기본 응급 산과 진료), CEmONC(종합 응급 산과 진료), 가족계획 교육, 마취간호사 교육, 조산사 교육, 감염관리 교육 등을 진행하며, 보건소 신속 증축 시공 및 의료기자재 공급 지원, 현지 보건 프로그램 개발, 주민인식 개선 활동 수행 등이 포함된다. 착수회 행사에는 서유성 순천향중앙의료원장, 김선국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사업에 투입되는 전문 인력들이 참석했다. 서유성 순천향대병원 중앙의료원장은 "우리 순천향은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굿네이버스와 함께 '인간사랑'의 정신을 세계 곳곳에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대사질환조직 항상성 연구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

순천향대학교는 2월 6일 순천향의생명연구원 1층 강당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대사질환조직 항상성 연구센터' 개소식을 열고, 이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연달아 진행했다. 심포지엄에는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 등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8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윤정교 순천향의생명연구원장은 "이번에 개소한 혁신선도연구센터는 대사질환조직 항상성 관련 분야를 집중 연구 분야로 설정했다"며 "우리 연구원이 가진 대사질환 및 조직재생 분야에 연구 역량을 집약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대표적 대사질환인 당뇨병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 예비 대학생 위한 적응캠프 진행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합격한 신입생 합격자 중 희망자 5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2020 SCH 대학생활 적응캠프'를 운영했다. 캠프는 2박 3일 일정으로 생활관에 입소해 비교과 과정과 관계망 맺기, 자기소개 등 대학에서 필요한 다양한 내용을 미리 체험하고 대학생활을 그려보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재학생 멘토들은 캠프기간 이후에도 멘토-멘티 활동을 유지해 신입생과 선배 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대학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의사국가고시 합격 지원 후원

순천향대의대동창회는 1월 23일 치러진 제 84회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한 후배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버스 대여 비, 도시락, 각종 물품지원으로 300여만 원을 지원했다.



### 창업 활성화...'동문투자펀드' 조성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창업지원단 주관으로 대학 총동문회와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및 '동문 투자펀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재학생, 교원창업 활성화와 함께 이들의 안정적 성장과 지원을 위한 창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 동문들의 자발적 기업지원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 내 교수창업자, 학생창업자, 동문 창업자 등 유망 스타트업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1억 원의 순천향 동문투자펀드가 창업지원단에 전달됐다.

### 고교 1, 2학년 대상 '진로체험 캠퍼스' 개최



순천향대가 고교 1, 2학년생들의 진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14~17일 총남 아산의 본교 캠퍼스에서 '진로체험 캠퍼스'를 열었다. 이 캠프에는 전국 64개 고교 50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전공 교수 및 선배의 만남을 통해 전공 선택과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행사였다. 14-15일 SCH미디어랩스(단과대학)에서는 중국학과, 스마트자동차학과 등 10개 학과가, 의과대학에서는 관련 분야 7개 학과가 진로 정보를 제공하고 멘토링 활동을 벌였다. 중국학과 학과장 박형준 교수는 "이번 진로체험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친환경자동차 분야를 선도하는 중국을 이해하는데 맞춰졌다"고 말했다.

## 서울병원

### 환자 위한 실컷이 문화 공연 마련 서울대학교 '마니피캇' 어린이 합창단



순천향대 서울병원(병원장 서유성)은 지난 1월 21일 오전 11시20분부터 12시까지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를 위한 실컷이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한복을 곁들여 차려입은 천주교 서울대교구 '마니피캇'어린이 합창단(단장 장원서 가브리엘선부, 지휘자 고아라 데레사)이 40여 분 간 아리랑, 두껍아 두껍아, 고향의 봄 등을 노래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성진 진료부원장은 "공연을 위해 병원을 찾아 준 합창단에 감사드리고,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가 환자 여러분의 쾌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니피캇 어린이합창단은 서울대학교 소속의 어린이합창단으로 노래를 통한 사회봉사와 사랑의 실천, 가톨릭 복음을 위해 1994년 3월에 창단된 합창단이다. 매년 갖는 정기 연주, 해외 연주, 특별 연주와 미디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한양로타리클럽, 서울병원 재외동포 환자 수술비 지원



한양로타리클럽이 순천향대 서울병원에서 임막박리 수술을 받은 재외동포 환자 자오메이효(ZHAO MEIYU 28세)씨의 진료비를 후원했다. 한양로타리클럽 최경순 교수와 이영서 회장, 윤구홍 회장은 1월 17일 순천향대서울병원을 찾아 수술을 집도한 이성진 인과 교수에게 수술비를 전달했다. 이성진 인과 교수에게 임막박리 수술을 받은 여권상씨는 17개월 된 딸과 함께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다. 환자는 눈에 감각스런 통증과 시력이 저하돼 현지 병원을 찾았다. '실명위기에대 마땅한 치료법이 없다'는 말을 듣고 한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이성진 교수를 알게 됐다. 급하게 순천향대병원을 찾은 환자는 열공성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12월 26일 응급수술 받았다.

### 의료봉사단, 응산역 귀성객 의료봉사



순천향대 서울병원 의료봉사단(단장 박병민 심장내과 교수)은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응산역 맞이방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혈압, 혈당 검사와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 '이현옥'을 명명 및 오픈, 발전기금 기탁에 감사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1월 29일 동별관 지하1층에서 '이현옥 홀' 명명 및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현옥홀'은 지난 10년간 순천향대학교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에 발전기금을 매년 기탁한 이현옥(주)상훈유통 회장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명명했다. 이현옥 회장은 월남전 참전용사로 국가유공자이다. 평소 '기업의 수익은 사회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이익금을 사회로 돌려줘야한다'는 신념으로 살아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과 대한민국의사군경회 이사로 활동하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세롭게 탄생한 이현옥 홀은 80석의 안락한 의자와 현대식 음향, 조명을 갖췄다. 1985년 'B강의실'로 출발해 2004년부터 'CEO강의실'로 사용해 왔다. 서유성 병원장은 "회장님의 깊은 뜻을 잘 살려서 좋은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새롭게 태어난 이현옥 홀도 잘 관리해 여러 부서와 직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천병원

### 신웅진 부천병원장, 제2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 선출



신웅진 부천병원장이 1월 16일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3차 대한수련병원협의회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에서 '제2대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임기는 2년간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국 전공의 수련병원장들의 모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양질의 전공의 수련교육 제공 및 적정 수련환경을 구축하여 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2월 출범했다. 신 회장은 "수련병원의 본질은 진료와 연구, 그리고 교육수련이다. 이제는 병원도 진료, 연구 뿐만 아니라 교육수련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임기 동안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병원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대외홍보팀 한세형 주임, 2019 SCH 보건·의료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학과 부속 병원 간 중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열린 '2019 SCH 보건·의료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대외홍보팀 한세형 주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순천향대학교가 주관했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통해 수상자가 가려졌으며, 시상식은 1월 30일 열렸다. 한세형 주임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예비 진단 시스템'을 발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추후 특허등록, 사업화 등 후속 단계를 추진한다.

### 황재필 핵의학과 교수,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3년 연속 등재



부천병원 황재필 핵의학과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2020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3년 연속 등재됐다. 세계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 후는 전 세계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인물을 분야별로 심사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황 교수는 핵장암, 담낭암, 간세포암 등 간담체 분야와 유양육종, 지방육종 등 근골격계 분야의 중양을 대상으로 생존 분석 및 예후에 관한 우수 연구논문을 다년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중앙 핵의학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학술 활동의 업적을 인정받아 3년 연속 등재됐다.

### 이비인후과·안과 외래 리모델링 완료

부천병원이 2월 24일 이비인후과와 안과 외래 리모델링을 완료해 더욱 쾌적한 진료실과 처치실, 검사실, 대기실에서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부천병원은 두 진료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별관 외래 리모델링을 지속한다.



## 천안병원

### 급성농약중독 치료 중 발생하는 지혈장애 원인 밝혀졌다



천안병원 신장내과 박상엘 교수팀이 급성농약중독 환자의 생존율을 높여주는 혈액관류와 혈액투석 치료 중 발생하는 부작용인 지혈장애의 기전을 밝혀냈다. 혈액관류는 오염된 혈액을 활성탄이 들어있는 카트리지에 통과시켜 혈중 약물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혈액투석과 동시에 시행하면 급성농약중독 치료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나 100명 중 3명꼴로 투석직후 지혈이 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박상엘 교수팀은 급성농약중독으로 치료 받은 환자들의 혈액을 분석한 결과 지혈장애가 발생한 환자들은 모두 혈액관류 과정에서 혈소판의 활성화가 불안정함을 발견해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유명학술지 Scientific Report 2019년 9월호에 '급성농약중독 환자에서 혈액관류가 지혈과정에 미치는 영향(Hemofiltration leads to impairment in hemostasis and coagulation process in patients with acute pesticide intoxication)'을 제목으로 게재됐다.

###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2월 9일부터 11월까지 충남·경기·경북지역의 석면피해 의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석면공장, 수리조선소, 자연발생 석면지역 등 석면 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석면슬레이트 밀집지역, 재개발·재건축지역은 만 50세 이상의 주민들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흉부 X-ray 검사 등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석면질환이 의심되면 흉부CT 등의 2차 검진으로 이어진다. 또 전문의 판단에 따라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등 3차 검진도 진행된다. 조사 결과 석면질환(원발성 악성종양,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으로 판정되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구제를 받는다. 조사문의는 전화(041-570-3813)로 하면 된다. 천안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는 유일한 국가 지정 석면전문기관이다. 전국의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석면피해구제 제도정착과 발전도 주도하고 있다.

### 8년째 불우환자 돕기 '훈훈'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8년째 지역 불우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어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천안병원 교직원들은 2012년부터 8년간 총 2억6200만원의 기금(한사랑 나눔 기금)을 모아 불우환자 268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사랑과 희망을 선물했다. 지난 2019년 교직원들의 의료비 지원 규모는 3950만원(환자 수 35명)에 달한다. 기금 모으기에는 현재 433명의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일 1만원 정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 환자는 병원 후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천안병원 교직원들은 한사랑 나눔기금 모금활동 외에도 간호부, 사무처, 의료기사업협회 등 여러 직역별로 매년 다양한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펼치므로써 순천향 정신인 '인간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 교직원 자녀 초등학교 입학선물 증정



천안병원이 2월 24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교직원 자녀들에게 선물세트를 전달하고 입학축하했다. 선물세트는 스케치북, 공책, 알림장, 크레파스, 색연필 등 총 15종의 학습용품으로 구성된 것으로 2020년 취학 자녀를 둔 55명의 교직원들에게 전달됐다.

### 꽃꽂이 강좌로 교직원 행복 증진



천안병원은 2월 5일 병원 중앙강의실에서 교직원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새해 첫 번째 꽃꽂이 강좌를 열었다. 전문 플로리스트가 진행한 강좌는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고,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꽃 장식 선물박스 만들기'를 내용으로 저녁 5시부터 6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됐다. 강좌의 제반 비용은 병원이 전부 부담했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교직원 20명이 참석했다. 병원은 더 많은 교직원들이 꽃꽂이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강좌를 4회 더 개최할 계획이다.

## 구미병원

### 보건의료복지 301네트워크 사업 업무협약 체결

구미병원은 2018년,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건강권 증진사업 '보건의료복지 301 네트워크'를 재개하였다. 301 네트워크사업은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접근 및 개입을 통해 의료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여 적시에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상자가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지원사업기간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로 1인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입원 및 외래치료비, 검사비, 이송비, 간병비, 보조기, 맞춤형 가정식 반찬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8개 지역 내 15개 병원과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구·경북지역 유일하게 구미병원에서만 전년에 이어 일원원의 지원금을 배정받아 301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문의 : 구미병원 사회사업실 ☎ 054)468-96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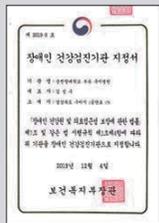


### 33 간호병 통합서비스 병동 OPEN

구미병원은 보호자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 간호인력이 일원화에게 24시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3월부터 26병상을 증설하였다. 구미병원은 지난 2017년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2019년 3월부터는 총69병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으며 이번엔 33병동(26병상)을 증설하여 총 95병상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구미병원은 기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많은 환자들에게 전문화된 간호·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휴게실 보안 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전반을 재정비했다. 뿐만 아니라 전담간호사가 24시간 통합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정된 보호자와 면회객만 정해진 면회시간에 출입할 수 있어 외부 감염병 유입의 위험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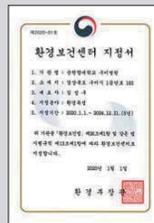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구미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2019년 하반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공모(7월 19일 ~ 7월 29일)하여 12월 4일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구미병원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어 지역사회 장애인의 낮은 수검과 외래 진료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의료 서비스의 이용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다. 선정 규모는 11개소로 지난해 이미 8개소가 지정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개소당 시설 장비비 총 1억1400만원을 지원하고 중증장애인 검진시 기본검진비용 외 건강 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를 추가 지급한다.

### 환경부 지정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로 지정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부 지정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다. 환경독성 환경보건센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총 5년간, 생활화학제품과 화학제품의 독성 및 중독에 의한 인체 건강영향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한편, 구미병원 환경보건센터는 2013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지역주민의 건강영향과 보건 증진을 위하여 유해가스 노출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까지 지역주민 대상 건강영향 조사와 환경보건 서비스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 SCH NETWORK

'인간사랑 정신과 의료의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과 가치를 실현합니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순천대학교  
www.sch.ac.kr

## 그래도 봄꽃은 피었다!

글\_백승주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공포로 사로잡혔지만  
어느새 봄을 알리는 3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건만 한겨울보다 더 얼어붙어 있습니다.

모두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학교도, 식당도, 교회도, 영화관도, 모임도 못하고  
살은 더 힘들어지는 뒤숭숭한 나날입니다

이 뒤숭숭한 세상 속에서도 봄꽃은 피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이 신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봄은 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분명 봄은 왔고  
지금의 힘든 시간도 분명 지나갈 것입니다.  
슬로몬의 지혜를 되새깁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봄의 희망, 봄의 따뜻함이 마스크를 벗게 할 것입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평온한 일상이 다시 돌아오겠죠?  
순천향 가족이 여러분께 희망의 봄꽃을 드립니다.

